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濟州道の 聚落名에 關한 地理的 研究

社會科敎育專攻 (地理敎育分野)

李 惠 源

1994

濟州道の 聚落名에 關한 地理的 研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 년 11 월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科教育專攻 (地理教育分野)

李 惠 源

李惠源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李 淑 姪



審査委員

劉 品 亨



元 亨 奎



金 立 勳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論文 概要	vii
I. 序 論	1
A. 研究 目的	1
B. 研究 方法	2
II. 研究地域 概觀	5
A. 自然的 背景	5
B. 人文的 背景	6
III. 聚落名の 時代別 分析	8
A. 聚落名の 高度 分布 變化	8
B. 行政聚落名の 變遷	15
IV. 聚落名の 類型別 分析	24
A. 空間關係 聚落名	24
B. 自然條件關係 聚落名	37
C. 人文條件關係 聚落名	59

V. 結 論	93
--------------	----

參考 文獻	95
-------------	----

영문 초록	97
-------------	----

表 目 次

1. 聚落名의 類型別 分類 基準	4
2. 1918년도와 1992년도의 해발 고도별 聚落名 分布 比較	8
3. 1918년도 聚落名의 類型別 高度 分布	11
4. 1992년도 聚落名의 類型別 高度 分布	13
5. 上下, 内外, 前後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25
6. 方位, 方向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30
7. 規模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33
8. 身體構造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36
9. 地形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38
10. 氣象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51
11. 動・植物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54
12. 村落共同體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60
13. 先後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64
14. 經濟活動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67
15. 交易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73
16. 防禦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77
17. 民俗・宗教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82
18. 歷史・傳說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87

그림 目 次

1. 研究 地域	4
2. 1992년도 聚落名의 類型別 高度 分布	14
3. 上下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26
4. 方位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31
5. 規模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35
6. 地形類(山系)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40
7. 地形類 聚落名의 高度 分布	44
8. 地形類(水系)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46
9. 氣象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53
10. 動・植物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55
11. 村落共同體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62
12. 先後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65
13. 經濟活動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71
14. 交易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75
15. 防禦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78
16. 民俗・宗教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83
17. 歷史・傳說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88

論文概要

地名은 地理的, 歷史的 特性이 綜合的으로 反映된 地域의 文化的 所産으로 地域과 人間生活과의 關係를 파악하는 地理學의 흥미있는 연구 대상이다.

本 研究에서는 도서지방으로 독특한 自然環境과 歷史的 배경을 가진 濟州道の 聚落名을 對象으로 命名要素別 類型分類, 時代別 聚落名の 변화, 類型別 高度分布 및 類型別 特性을 分析하여 제주도의 自然的·人文的 特性 및 地域住民의 環境認知를 究明하였다.

聚落名 수집은 1918년도와 1992년도의 1:50,000 地形圖, 한국지명총람(제주 편)과 제주토속지명 사전을 기초로 하여 수집하였으며 聚落名の 類型 分類는 空間關係, 自然條件關係, 人文條件關係 聚落名으로 크게 分類하였다.

研究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行政聚落名の 變遷이 심하였으며 순수 우리말 地名을 漢字化하는 과정에서 原地名 고유의 特性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 1918년의 空間關係 聚落名은 21.7%였으나 1992년에는 40.2%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것은 해방후 취락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편의상 上下類에 東西南北 方位類를 혼합시켜 만들어낸 聚落名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셋째, 自然條件關係 聚落名 중 地形類는 山系(13.9%)보다 水系(18.3%) 聚落名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聚落立地에 水系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고도는 山系 98.5m, 水系 63.6m, 平野系 97.2m로 平野系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주민들의 환경 인지가 상대적인 것이어서 山間地域의 좁은 평지나 완경사지에서도 平野를 지칭하는 취락명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기생 화산에 관련된 ‘오름동’과 검은돌이 많아命名된 ‘먹돌생이’ 등 火山地形의 특징을 반영하는 특이한 聚落名이 다수 분포하였다.

다섯째, 대부분의 聚落名에서 地域別 出現頻도가 높게 나타난 濟州와 涯月은 한반도와의 最短通路이며 漁撈資源, 湧泉, 비옥한 土質 등 기본적인 生活條件이 구비되어 일찌기 聚落이 발달되어 있었고, 西歸浦는 天然的 良港, 감귤 재배의 중심지, 관광 도시로 크게 발전한 것에 기인한다.

여섯째, 人文條件關係 聚落名은 村落共同體類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말’ 地名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洞’이 37.9%로 높은 頻度를 나타냈다.

일곱째, 經濟活動類 聚落名에서는 ‘밭’ 취락명이 8.2%로 가장 많으며 논이 경지의 2%에 불과하나 논을 구하려는 집착이 강해 ‘논’에 관한 聚落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馬場, 牧牛에 관련된 축산업 취락명이 많이 나타나 고려, 조선시대 때 주요 목마장으로써의 역할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本地域은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은 곳으로 邑城과 山城을 많이 축조하여 防禦類 聚落名 중 城廓에 관련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홉째, 民俗·宗教類 聚落名은 변화가 심한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 신앙이 더 발달되어 있으며 ‘堂·祭’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歷史에 관련된 취락명은 소, 말 등의 축산업과 홍수, 바람 등 기후에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며, 傳說 聚落名은 시조인 高, 梁, 夫 3인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타났다.

I. 序 論

A. 研究 目的

地名은 우리 人間生活의 터전이 되는 特定 地點이나 地域을 指稱하는 말로서 生活의 必要에 의해 自然發生的으로 命名된 것이다¹⁾. 따라서 地名은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生活했던 사람들이 自然, 人文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던 印象 또는 事象을 기준으로 命名했을 것이므로 그 地名에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일이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地名에는 우리 祖上의 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研究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²⁾.

본래 地名은 그 性格上 地理的 性格(地域相)과 歷史的 性格(時代相)이 綜合的으로 反映된 地域의 文化的 所産이다³⁾. 이러한 地名의 分析을 통해 그 地域의 自然的 特性은 물론 地域住民의 社會, 經濟, 意識構造의 一面까지 究明할 수 있다. 따라서 지명의 연구는 地域과 人間生活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리학의 흥미있는 연구대상이다.

聚落은 人間の 基本的인 共同生活의 場으로 地域의 自然的·歷史的·文化的 特性을 反映한다. 따라서 이들 聚落의 이름도 그 地域의 地理的 特性, 社會的, 文化的, 經濟的인 특성이나 주민들의 자기 고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지를 반영하고 있다.

¹姜吉夫(1985). 『郷土와 地名』(서울 : 正音社), p. 11.

²李泳澤(1986). 『한국의 지명』(서울 : 太平洋), p. 28.

³元學喜(1982). 서울市の 洞名攷. 『地理學叢』, 第10號(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p. 304.

聚落名에 대한 地理學的 研究는 ‘田京淑’의 “충청북도 地名의 類型分布”, ‘申鉉雄’의 “충북 보은군 촌락명의 유형”, ‘李桓坤’의 “충청남도의 지명”, ‘安矯植’의 “경남 협천군의 취락명”에 관하여 命名要素別 類型分布 및 特性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⁴⁾

이들 기존 연구 지역에 비하여 濟州道는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고 地理的으로 독특한 火山地形을 이루고 있어 본토와 의식주 생활이나 환경에 대한 인지에서 본토 주민과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高麗時代 항몽 유적지로서 많은 歷史, 傳說을 찾아볼 수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특이한 地域性이 地名에 反映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本 論文에서는 濟州道の 聚落名을 대상으로 命名要素別 類型分類, 時代別 聚落名の 변화, 類型別 特性을 분석하여 濟州道の 自然的·人文的, 特性 및 地域住民의 環境認知를 밝히는데 目的을 두고자 한다.

B. 研究 方法

聚落名の 類型分類는 自然聚落名과 行政聚落名을 합하여 聚落名の 命名基盤에 대한 의미 분석을 類型別로 세분화하여 표 1의 類型分類 기준에 따라 分析하여

⁴⁾田京淑(1979). 忠清北道 地名의 類型分布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建國大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미간행.

申鉉雄(1981). 忠北報恩郡 聚落名の 類型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미간행.

李桓坤(1986). 忠清南道の 地名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미간행.

安矯植(1988). 慶南 陝川郡의 聚落名에 關한 研究.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미간행.

보았다.

특히 도시화와 지역개발, 인구변동에 의해 지명이 많이 변화하였고, 또한 行政區域의 變遷으로 인한 지명의 변화는 고유의 뜻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그 변천 과정을 分析하여 그 特性을 살펴보았다.

또한 육지와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京畿道 江華郡을 선정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分析方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聚落名 收集은 1992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50,000 지형도에 表記된 聚落名과 부수적으로 한글학회의 간행물인 韓國地名總攬⁵⁾(제주편)을 병행하여 총 1690개의 聚落名을 수집하였다.

둘째, 聚落立地の 변화와 聚落名の 변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聚落의 高度別 分布를 1918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五萬分之一 地形圖와 1992년도의 지형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行政聚落名 변화의 分析은 韓國地名 總攬(제주편)과 '오성찬'의 제주토속지명사전⁶⁾을 기초로 1918년 이전과 현재의 취락명으로 분류하였다.

네째, 聚落名の 類型分類는 空間關係 聚落名, 自然條件關係 聚落名, 人文條件關係 聚落名으로 크게 分類하였다.

다섯째, 聚落名の 類型別 特性을 통계, 지도화, 分析을 통해 제주도의 地域性을 究明하였다.

研究地域은 그림 1과 같다.

⁵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제16권 제주편. (서울: 한글학회).

⁶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서울: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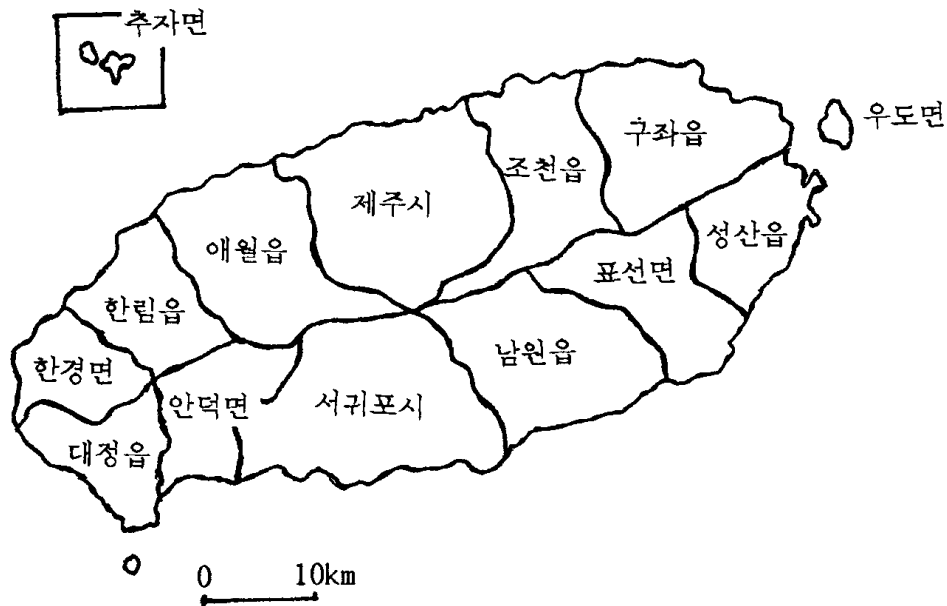


그림 1. 研究 地域 (濟州道)

표 1. 聚落名의 類型別 分類 基準

空間 關係 地名		自然 條件 關係 地名		人文 條件 關係 地名		
空間・位置類	上中下, 內外, 前後, 高低	地形類	山系	山, 岳, 旨, 岩, 石, 고개, 崖, 窟, 谷	村落共同體類	동네, 村, 말, 부락, 가름, 里, 洞, 同姓
方位・方向類	東西南北 너머, 건너, 편, 끝, 구석		水系	江, 川, 폭포, 水, 井, 泉, 湖沼, 浦, 串	先後類	新, 舊, 元, 本
			平野系	坪, 伐, 平	經濟活動類	논, 밭, 牧牛, 馬場, 수산업, 幕, 店, 所, 광업
規模類	大小, 長短 廣狹	氣象類	陰, 陽, 日, 月, 기타	交易類	거리, 驛, 院, 나루터, 橋, 場市, 倉	
身體構造類	머리, 목, 귀, 눈			動・植物類	松, 林, 기타식물, 動物	防禦類
		民俗・宗教類	향교, 유교덕목, 堂, 祭, 寺, 塔, 支石, 立石, 亨			
				歷史・傳說類	宮, 陵, 官, 歷史, 傳說	

II. 研究 地域 概觀

A. 自然的 背景

濟州道는 한반도 南西 海상에 있는 韓國 最大의 섬인 濟州島와 주변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北으로 목포와의 거리는 141.6km, 北동쪽 부산과의 거리는 286.5km, 東으로 日本 쓰시마(對馬島)와의 거리는 255.1km 떨어져서 位置한다.⁷⁾ 數理的 位置는 東經 $126^{\circ} 9' \sim 126^{\circ} 58'$, 北緯 $33^{\circ} 6' \sim 34^{\circ} 0'$ 이다.

본도의 位置는 한반도에서는 南西端에 해당되나 韓國, 中國, 日本 등 極東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地質은 제3系 플라이오세의 서귀포층과 제4系 플라이스토세의 퇴적암층과 玄武岩, 粗面岩質 安山岩, 粗面岩 등의 火山岩類 및 寄生火山에서 분출된 火山碎屑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火山活動은 크게 5회의 噴出輪廻로 구분되며 총 79회 이상에 달하는 熔岩噴出이 있었다. 표면은 透水性이 강한 多孔質의 玄武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熔岩平原을 형성한다. 粗面岩質 安山岩이 노출된 정상 부근, 영실 부근, 남서해안의 西歸浦, 山房山 부근 등은 斷崖를 형성하고 있다. 地形은 火山島로써 火山地形의 특색을 흔히 볼 수 있고 漢拏山을 정점으로 하여 東西斜面은 매우 완만한 傾斜($3^{\circ} \sim 5^{\circ}$)를 이루나 南北斜面은 보다 급한 傾斜($5^{\circ} \sim 7^{\circ}$)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아스피테식 火山(Aspite: 楯狀火山)이다. 이런 火山體의 모양은 濟州道의 地形的 특색을 이루는 400여개의 寄生火

⁷⁾『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25권. “제주도” 항목. 서울: 동아출판사, 1982, p. 112.

山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용암류가 넓게 흐른 北西, 北東쪽에는 규모가 큰 熔岩窟(lava tunnel)이 많이 分布하여 세계적인 용암동굴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도의 水系는 지세가 漢拏山을 정점으로 하여 방패 모양을 이루고 있어 放射狀 水系를 이룬다. 그러나 南北 양측 사면에 비하여 傾斜가 완만하고 긴 斜面과 넓은 熔岩平原이 발달한 東西 양측에는 水系의 발달이 미약하다. 대부분의 河川은 불과 15km 내외이며 각 河川들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쉬운 다공질의 玄武岩 위를 흐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乾川을 이루고 있다.

氣候는 우리나라 最南端이며 연안을 난류가 흐르는 까닭에 기온의 年較差가 작은 전형적인 海洋性 氣候를 나타낸다. 年降水量은 1,440mm(제주시), 1,688mm(서귀포시)로 우리나라 最多雨地域에 해당한다.

B. 人文的 背景

濟州道の 명칭은 島夷, 東瀛州, 州胡, 耽牟羅, 涉羅, 託羅, 耽羅, 濟州 등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려 왔다.⁸⁾ 高麗史 地理誌 등에 의하면 三姓(高, 梁, 夫)의 開闢說話가 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高乙那의 15대손 高厚 등 3형제가 新羅에 入朝하여 耽羅의 국호 및 벼슬을 받아와서 耽羅國을 개국하였다. 그후 新羅, 高麗의 속국이 되었다가 1105년 高麗 숙종 10년에는 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다스리게 되었다.

1153년(의종7)에 군을 현으로 고치고 1211년(희종7)에 탐라를 제주라고 개칭하였다. 1275년(충렬왕1)에 몽고의 직속령이 되었다가 1295년(충렬왕21)에 다시

⁸⁾ 앞 글, p. 112.

高麗에 還元되는 등 원이 망할 때까지 몇차례 되풀이 되었다. 1416년(조선 태종 16)에 漢拏山을 경계로 山北을 제주라 하여 牧司를 두고 山南을 양분하여 동쪽에 旌義縣, 서쪽에 大精縣을 설치하여 현감을 두고 통치하다가 1864년(고종 1)에 대정, 정의 양현을 군으로 昇格시켜 전라도 관찰사 관할하에 두었다. 한일합방후인 1915년 島司制로 개편, 濟州島가 되었고, 1946년 道制 실시로 전라남도 관할 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현재 2시 2군 7읍 5면의 行政區域이 되었다.

산업으로는 농목업, 관광업, 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작물 중 고구마와 유채, 감귤, 파인애플의 생산량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특히 감귤은 전국 제1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地理的인 자연 조건이 牧畜에 적당하며 1272년(고려 원종13)에 원나라가 들어와 牧馬場을 설치하면서부터 대대적인 목축이 시작되었다. 목장수는 128개소, 한우, 젓소, 말, 돼지, 면양, 닭 등이 飼育되고 있다.

濟州道는 4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어서 일찍부터 수산업에 종사해 왔으며 어류로는 도미류와 민어 등 난류성 어족이 주로 잡히고 예로부터 海女들의 소라, 전복 등의 패류와 미역 등 해조류 採取가 유명하고 특히 해녀들의 물질은 觀光資源이 되기도 한다.

交通은 道路交通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181km의 海岸迂廻道路와 2개의 漢拏山 橫斷道路(제1, 제2), 東部産業道路 등의 포장으로 觀光綜合開發에 基盤을 마련해 놓고 있다. 海上交通은 70년대 이후 관광 종합 개발의 추진으로 목포, 부산, 여수 등지에 카페리호가 就航하게 되었다. 航空交通은 70년대부터 제트 旅客機의 就航으로 전국이 1시간대로 단축되어 1일 生活圈이 되었다.

Ⅲ. 聚落名の 時代別 分析

A. 聚落名の 高度 分布 變化

우리나라의 聚落은 대체로 背山臨水의 位置에 立地하고 있으며 高度는 대부분 해발 100m 이하의 低地帶에 分布하고 있고 高地帶에 分布하는 聚落은 少數에 불과하다. 그러나 高地에서도 經濟的인 利得이 있거나 生活의 便利함이 있을 때는 居住地가 形成된다.⁹⁾

제주도는 해발 고도 100m 이하의 해안 지대에 용천대를 따라 대부분의 취락이 분포하며 목장이나 표고버섯 재배지역 등 경제적 활동의 적합한 입지조건을 따라 400~600m의 상당히 높은 地域에도 소수의 취락이 分布하고 있다.

1. 1918년도와 1992년도의 高度別 聚落名 分布 比較

표 2. 1918년도와 1992년도의 해발 고도별 聚落名 分布 比較

高 度 (m)	0~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이상	計	평 均 고 도
1918년	316 (60.8)	106 (20.4)	48 (9.2)	19 (3.7)	18 (3.5)	13 (2.5)	520 (100)	86.8
1992년	687 (75.5)	155 (17.0)	38 (4.2)	17 (1.9)	9 (1.0)	4 (0.4)	910 (100)	71.1

註 : ()안은 백분율임.

⁹⁾安矯植(1988), p. 29.

표 2에 의하면 1918년에는 고도 0~99m 사이에 立地하는 聚落이 60.8%, 평균 고도는 86.8m이며, 1992년에는 0~99m 사이의 취락이 75.5%, 평균고도 71.1m로 약 70년이 지난 오늘날 전체적으로 高度가 낮아졌다.

이것은 中山間 地帶가 자급자족 경제시대에는 農耕과 牧畜을 겸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地域인데다 해안으로 침입하는 外敵에 대한 피해를 면할 수 있는 安全地帶이어서 일제시대 초기까지는 인구가 많이 집중하였으나 그후 육지와 定期航路가 개설되어 해산물의 販路가 열리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¹⁰⁾, 더욱 湧泉이 풍부하고 地形이平坦하여 농경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해안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聚落名の 類型別 高度分布

해발 고도에 따라 聚落名の 類型別 分布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把握하기 위하여 各 類型別 聚落名을 高度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또한 日帝時代와 現代의 聚落名이 類型別로 어떤 변화를 나타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가. 1918년도 聚落名の 類型別 高度分布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18년도 聚落名の 類型別 高度分布를 보면 自然條件關係 聚落名이 262개로 전체 취락명의 5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

¹⁰⁾姜錫牛(1984). 『新韓國地理』(서울: 大學校材出版社), p. 247.

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人文條件關係 聚落名이 145개로 전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空間關係 聚落名은 113개로 전체의 21.7%이고 日帝時代에는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自然條件關係 聚落名과 高度의 관계를 살펴보면 0~99m의 低地帶에서는 水系 聚落名이 67개, 25.6%로 많은데 비해 平野系 聚落名은 8개, 3.1%로 17.6%를 차지하는 山系聚落名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本地域이 물을 얻기 어려운 지역으로 聚落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水系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고도를 보면 山系가 107.7m, 水系 83.5m, 平野系 99.8m로 平野系의 평균 고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地名이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自然環境을 直接的으로 반영하지만 平坦地나 傾斜地에 대한 住民의 知覺이 절대적인 것 보다 상대적으로 나타나, 산지가 많은 本地域에서는 좁은 평지나 완경사지에서 平野를 지칭하는 聚落名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人文條件關係 聚落名에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交易・經濟活動類 聚落名으로 50개, 34.5%를 차지하며 평균 고도도 가장 높아 132.1m로 나타났다. 이는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해발고도 200~600m 사이로 목장이 많이 분포하며, 산간 내륙 지방에 평탄하고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곳은 경지로 개척을 하여 '田' 聚落名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 1918년도 聚落名의 類型別 高度分布

類型 高度 (m)	空間關係 聚落名				自然條件關係 聚落名					
	空間· 位置	方位· 方向	規模· 身體 構造	小 計	地 形			氣象	動物· 植物	小 計
					山系	水系	平野系			
0~ 99	28 (24.8)	23 (20.4)	17 (15.0)	68 (60.2)	46 (17.6)	67 (25.6)	8 (3.1)	12 (4.6)	29 (11.1)	162 (61.8)
100~ 199	8 (7.1)	8 (7.1)	9 (8.0)	25 (22.1)	19 (7.3)	17 (6.5)	5 (1.9)	3 (1.1)	6 (2.3)	50 (19.1)
200~ 299	2 (1.8)	2 (1.8)	3 (2.7)	7 (6.2)	12 (4.6)	5 (1.9)	1 (0.4)	3 (1.1)	7 (2.7)	28 (10.7)
300~ 399	·	3 (2.7)	·	3 (2.7)	4 (1.5)	4 (1.5)	3 (1.1)	·	·	11 (4.2)
400~ 499	4 (3.5)	·	·	4 (3.5)	3 (1.1)	3 (1.1)	·	·	2 (0.8)	8 (3.1)
500~	3 (2.7)	1 (0.9)	2 (1.8)	6 (5.3)	·	2 (0.8)	1 (0.4)	·	·	3 (1.1)
計	45 (39.8)	37 (32.7)	31 (27.4)	113 (100)	84 (32.1)	98 (37.4)	18 (6.9)	18 (6.9)	44 (16.8)	262 (100)
平 均 高 度	92.6	87.6	80.3	86.8	107.7	83.5	99.8	65.3	96.0	90.5

類型 高度 (m)	人文條件關係 聚落名					總 計
	先後	交易· 經濟 活動	防禦	民俗· 宗教· 歷史· 傳說	小計	
0~ 99	26 (17.9)	22 (15.2)	9 (6.2)	29 (20.0)	86 (59.3)	316 (60.8)
100~ 199	3 (2.1)	13 (9.0)	6 (4.1)	9 (6.2)	31 (21.4)	106 (20.4)
200~ 299	·	5 (3.4)	3 (2.1)	5 (3.4)	13 (9.0)	48 (9.2)
300~ 399	1 (0.7)	4 (2.8)	·	·	5 (3.4)	19 (3.7)
400~ 499	2 (1.4)	3 (2.1)	·	1 (0.7)	6 (4.1)	18 (3.5)
500~	·	3 (2.1)	·	1 (0.7)	4 (2.8)	13 (2.5)
計	32 (22.1)	50 (34.5)	18 (12.4)	45 (31.0)	145 (100)	520 (100)
平 均 高 度	49.2	132.1	71.7	79.7	83.2	86.8

註 : ()안은 백분율임

나. 1992년도 聚落名の 類型別 高度分布

표 3과 표 4를 살펴보면 1918년도와 1992년도의 聚落名の 類型別 高度分布를 비교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空間關係 聚落名이 1918년에는 113개, 21.7%이었던 것이 1992년에 와서는 366개로 전체 취락명의 40.2%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해방후 海外로 부터의 歸還民과 6·25 동란때 피난민 轉入 등의 사회증가로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후로도 급속한 개발로 계속 증가하여 취락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聚落名을 위치에 따라 상·중·하, 동·서·남·북 등으로 命名한 것에 기인한다. 해발 고도별 분포도 매우 낮아져 100m 이하의 聚落이 일제시대에 60.2%이었던 것이 現代에는 80.6%로 증가하였다.

空間關係 聚落名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낸 것은 自然條件, 關係 聚落名으로 325개, 35.7%를 차지하였으며, 空間關係 聚落名の 증가로 191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고도분포는 1918년 보다 낮아져 100m 이하에 분포하는 聚落이 61.8%에서 71.7%로 증가하였으며 地形類 聚落名の 평균고도는 1918년과 마찬가지로 山系가 98.5m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平野系로 97.2m, 가장 낮은 것은 水系로 63.6m를 나타냈다.

人文條件關係 聚落名도 1918년과 비슷한 현상을 보여 交易·經濟活動類 聚落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도별 分布를 보면 100m 이하 地域은 60.8%에서 75.5%로 늘어난 반면 100m 이상 되는 地域은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類型別 高度 分布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空間 關係 聚落名이 가장 낮은 地域에 分布하고 있으며, 自然條件關係 聚落名이 200m 이상되는 곳에도 상당수 분포하여 가장 높은 高度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1992년도 聚落名의 類型別 高度分布

類型 高度 (m)	空間關係 聚落名				自然條件關係 聚落名					
	空間· 位置	方位· 方向	規模· 身體 構造	小 計	地 形			氣象	動物· 植物	小 計
					山系	水系	平野系			
0~ 99	154 (42.1)	100 (27.3)	41 (11.2)	295 (80.6)	54 (16.6)	101 (31.1)	21 (6.5)	29 (8.9)	28 (8.6)	233 (71.7)
100~ 199	25 (6.8)	23 (6.3)	8 (2.2)	56 (15.3)	19 (5.8)	22 (6.8)	3 (0.9)	4 (1.2)	13 (4.0)	61 (18.8)
200~ 299	6 (1.6)	4 (1.1)	1 (0.3)	11 (3.0)	8 (2.5)	3 (0.9)	1 (0.3)	4 (1.2)	2 (0.6)	18 (5.5)
300~ 399	1 (0.3)	·	·	1 (0.3)	4 (1.2)	2 (0.6)	1 (0.3)	·	·	7 (2.2)
400~ 499	2 (0.5)	·	1 (0.3)	3 (0.8)	1 (0.3)	1 (0.3)	2 (0.6)	·	·	4 (1.2)
500~	·	·	·	·	1 (0.3)	1 (0.3)	·	·	·	2 (0.6)
計	188 (51.4)	127 (34.7)	51 (13.9)	366 (100)	87 (26.8)	130 (40.0)	28 (8.6)	37 (11.4)	43 (13.2)	325 (100)
平 均 高 度	54.2	55.5	61.5	57.1	98.5	63.6	97.2	67.4	73.3	80.0

類型 高度 (m)	人文條件關係 聚落名					總 計
	先後	交易· 經濟 活動	防禦	民俗· 宗教· 歷史· 傳說	小計	
0~ 99	46 (21.0)	36 (16.4)	32 (14.6)	45 (20.5)	159 (72.6)	687 (75.5)
100~ 199	7 (3.2)	14 (6.4)	6 (2.7)	11 (5.0)	38 (17.4)	155 (17.0)
200~ 299	·	4 (1.8)	3 (1.4)	2 (0.9)	9 (4.1)	38 (4.2)
300~ 399	·	6 (2.7)	·	3 (1.4)	9 (4.1)	17 (1.9)
400~ 499	·	2 (0.9)	·	·	2 (0.9)	9 (1.0)
500~	·	2 (0.9)	·	·	2 (0.9)	4 (0.4)
計	53 (24.2)	64 (29.2)	41 (18.7)	61 (27.9)	219 (100)	910 (100)
平 均 高 度	45.3	126.9	60.0	72.9	76.3	71.1

註 : ()안은 백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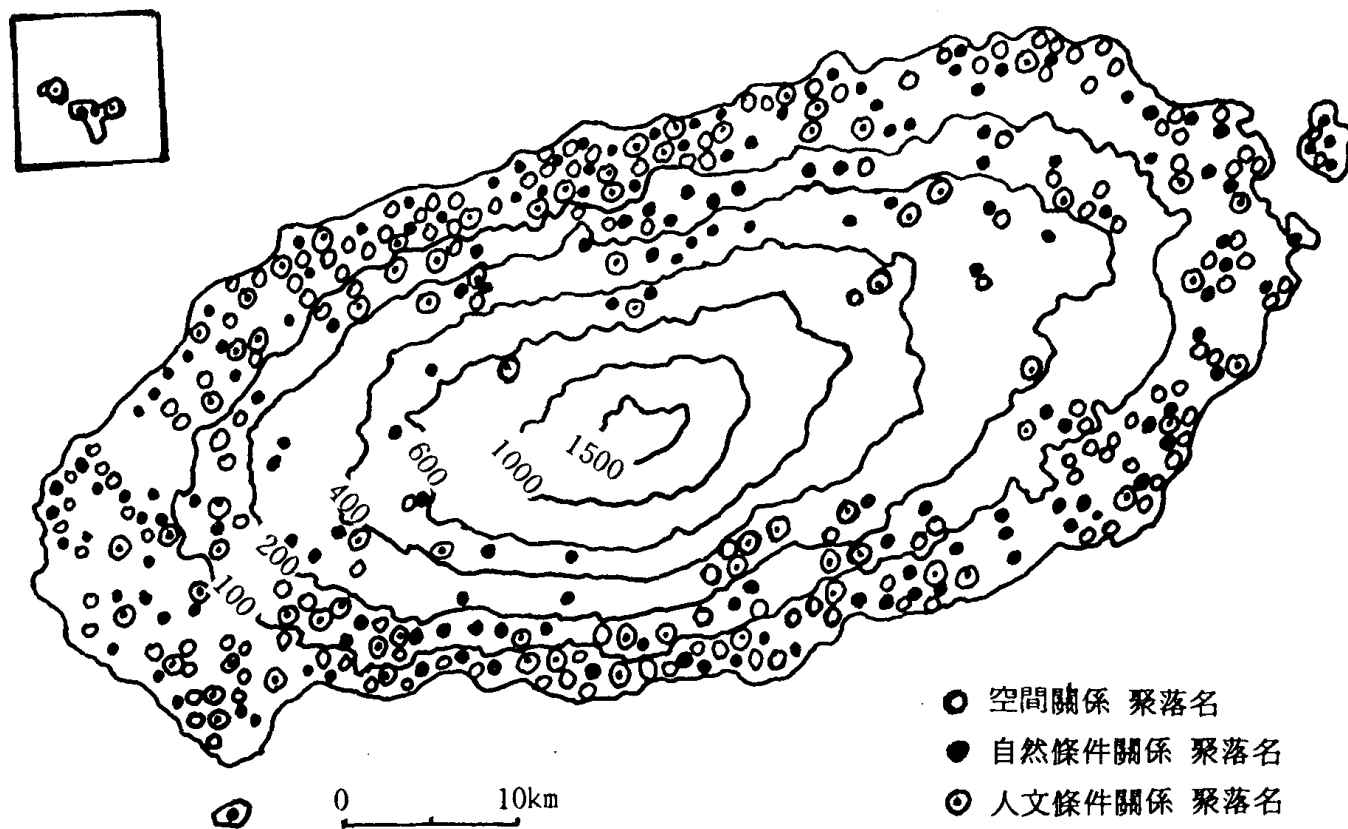


그림 2. 1992년도 聚落名の 類型別 高度 分布

B. 行政聚落名の變遷

1. 聚落名の變遷類型

地名은 계속 命名되고, 그 地名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地名으로 바뀌기도 한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地名에 흡수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地名은 오랜 세월동안 傳承되어 오면서 自然的으로 혹은 人爲的으로 생기는 地理的 變化, 音韻形態의 變遷과 더불어 派生되는 意味의 變化 때문에 그 地名에 붙었던 本來의 뜻을 그릇 판단하기 쉽고, 本來의 意味와 전혀 관계없는 地名이 되기도 한다.¹¹⁾

원래 우리나라는 말, 벌, 골... 등 순수 우리말 地名이 사용되었으나 中國文化의 影響을 받아 新羅 35代 景德王 때에 모든 地名을 漢字語로 記錄하게 되면서 부터 漢字語로 바뀌어 傳承되어 왔다.¹²⁾

특히 行政聚落은 行政上の 便利를 위해 한 개 또는 두 개 以上の 自然聚落을 하나로 묶어서 末端行政單位 地域으로 人爲的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취락명의 命名은 併合된 自然聚落名 中에서 原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漢字로 바꾸는 과정에서 意味가 달라진 것도 많다. 그러므로 行政聚落名은 그 地域의 性格을 正確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行政區域의 變化와 더불어 많은 變遷도 이루어진다.¹³⁾ 지금의 行政聚落名은 1914년 行政區域 改編 때에 가장 많이 변하였다. 地名의 意味가 變하는 原因으로

¹¹⁾ 姜吉夫(1985), p. 67.

¹²⁾ 田京淑(1979), p. 25.

¹³⁾ 申鉉雄(1981), p. 42.

- ① 發音의 不正確과 音韻의 變遷 不完全한 發音이 訛傳되거나 發音하기 쉬운 대로 나타나는데 起因
- ② 文字表記의 變化
- ③ 地域의 併合에서의 變化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地域이 併合되어 생긴 合成 地名
- ④ 其他 전혀 關係없이 지어진 地名 등을 들고 있다.¹⁴⁾

제주도의 경우는 행정 취락명의 대부분이 지역의 병합에 의한 경우와 순수 우리말 지명을 漢字化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천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併合 地名의 類型

併合 地名은 行政聚落名¹⁵⁾의 경우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행정구역개편이나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정때 만들어진다. 대부분이 漢字 地名인 行政聚落名의 경우 이미 있는 이웃한 漢字 地名을 한 자씩 취해서 다시 두 자 地名을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併合 地名의 예를 들면

新桃里(桃源里 + 순창리)	長羅洞(長路洞 + 羅新洞)
松堂里(소나무 + 신당)	月林里(翰林里 + 明月里)
翰洙里(翰林里 + 洙原里)	沙坪洞(沙川洞 + 坪垆洞)이 있다.

¹⁴⁾姜吉夫(1985), pp. 64-66.

¹⁵⁾本 論文에서는 法定洞里名과 行政區域 邑面名을 포함해서 指稱함.

聚落을 統廢合할 때 併合 地名을 만드는 경우 地名의 命名은 容易하나 地域性의 반영은 많이 喪失된다. 本 地域은 併合 地名이 6개이며, 강화군은 40개로 나타나 병합 지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漢字化로 變化된 地名의 類型

우리말로 된 지명중 한자로 변하면서 原지명의 뜻을 담아 한자로 바뀐 경우, 원지명의 뜻이 변한 경우, 그리고 임의로 만들어진 지명들이 있다.

이런 지명들은 대체로 지형, 기상, 동식물 등 자연적인 요소와 인문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도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자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명이 대부분을 이룬다.

가. 原地名의 意味가 많이 포함된 경우

(1) 自然條件 關係 地名

(가) 山系 地形類

물뚝 → 水山

난뚝 → 蘭山

가시오름 → 加時

곽오름 → 郭支

엄장이(낭떠러지)→엄장→舊嚴

새엄장이→신엄장→新嚴

어림빌레(너럭바위)→어린비→於音

거문덕이(거문덕오름)→今德

눈미(누워있는 산 모양)→臥山

도래메(어도오름)→도래미→어도어→於道

배랭이→배령이→金陵

거문오름→금오름→今岳

막은골→머금골→색다리→穢達

도들(도들봉밀)→도토리→道頭

봉아오름→봉개름→奉蓋

오두쌍이오름→梧登

절려가름→兎山

(나) 水系 地形類

고는꽃(가는꽃)→細花

무주애→月汀

웃모슬개→上募里

알모슬개→下募里

창고내→倉川

넋기→下川

한흘→大屹

논흘→臥屹

뒷개→北浦→北村

용못→龍塘

널개(넓은개)→판을포→板浦

큰 개→大浦

도래물(물이 돌아서 흐름)→도무리→回水

건들개→건입멀→健入

드르생이(들에 샘이 많음)→들생이→세미→回泉

소길(沼)→석길(沼를 石으로 잘못알고 씀)→牛路→召吉

돌개→독개→독포→瓮浦

멜 캐(멸치를 잡던 해변)→약포

(다) 平野系 地形類

너븐들→廣坪

난드르→출평→大坪

뱅디(버덩)→坪垸→都坪

도련드르(둥그랗게 생긴 들)→도려이→道連

다랗곳(한라산 밑 벌판)→월하→月坪

(라) 氣象類

동날외→東日

날외→日果

묵이(산이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므로)→默里

(마) 動・植物類

닥물(닥나무가 많음)→닥모르→楮旨

한수풀→대림→翰林

벌레낭(복나무)→甫木

아라우(지형이 난초 모양을 함)→아란→我羅

(2) 人文條件關係地名

물우리(바다를 널리 바라봄)→水望

웃창고내→上倉

웃더럭→웃가락→상가락→上加

아랫더럭→알더럭→하가락→下加

射場밭→장밭→長田

도리(다리)→橋협

현흘(현씨가 처음 살았음)→善屹

가문질(숲을 가문질러 큰 길이 됨)→月令(지형 모양이 반달임)

웃예리→上貌

칫물→表善(최씨와 현씨가 마을을 개척함)

나. 原地名의 意味가 變化된 경우

순수 우리말 地名을 漢字化하는 과정에서 原地名 고유의 特性을 살리지 않고 쓰고 부르기 편리하게 恣意的으로 命名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1) 自然條件 關係 地名

(가) 山系 地形類

괴이(괘동산)→漢東

심돌→始興

와깁이→三達

그등애→新山

곽남(곽오름 남쪽)→과납→納邑

너분돌거리→광석동→上貴

차귀진→신두모리→高山

천아악동→종구술→上大里

느지리(지형이 늘어진 모양)→만조동→上明

돌송이→석송리→道順

영남→龍興

(나) 水系 地形類

거문길→沙溪

모록밭→上川

번내→和順

검홀→德泉

어등개→杏源

지세포→와포→龍水

잠물개→洙原

모르내가름→오라위→吾羅

웃무드내→龍崗

한더기→대웅포→용연→龍潭

백개→백포→梨湖

기눈(게 눈 모양)→海安

별인내→베린내→禾北

(다) 平野系 地形類

웃날외→新坪

소섬→우도→演坪

무드내→寧坪

뚝드르(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물을 먹음)→吐平

(라) 動・植物類

가마귀모르(까마귀가 많이 내려 앉음)→下禮

송낭(소나무)→龍興

궁돌왓(밭에 궁돌이 있음)→입석→한림→大林

섭재(섞나무)→挾才

(2) 人文條件 關係 地名

예혼(고, 부, 양 3신인이 혼례 지냄)→溫平(온화하고 태평한 곳)

구석밭→구억리

새당→德修

셋막→간막→東福

모슬개→구모슬개→錦城

항바도리→항파두성→古城

다. 原地名과 전혀 관계없이 命名된 경우

여러 동을 합하여 전혀 관계 없는 새로운 地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新興里 : 새로 일어나라는 뜻

泰興里 : 크게 일어나라는 뜻

永樂里 · 永興里 : 길이 흥왕하라는 뜻

新昌里 : 새로 번창함

지거홀→평화동 : 1948년 4·3폭동으로 피난하고 돌아온 뒤 평화를 바라는 뜻으로 고침

그외 三陽, 山陽, 大倫, 大川, 松山, 靈泉, 龍潭 一·二·三洞, 光令一·二·三里, 이도 1·2동, 삼도 1·2동, 오라 1·2·3동, 외도 1·2동 등이 있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行政聚落名의 變遷은 순수 우리말 地名을 漢字化하여 變化된 地名으로 고유지명을 漢字로 바꾸어 原地名의 意味가 그대로 포함된 類型도 많이 나타났으나 任意로 命名하고 解釋을 붙여 意味가 바뀌어 버리거나 여러개의 里, 洞을 併合하여 命名할 때 舊地名중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地名으로 만들어진 類型도 높은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本 地域의 위치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랫동안 그 地域의 독특한 방언과 함께 순수 우리말 地名이 많이 남아 있었던 곳이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漢字 地名化할 때 심한 변천을 겪게 된 것이다.

地名이 그 地域의 地理的, 歷史的 特性과 상관없이 바뀌어진 것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地名을 지키는 운동이 住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새로이 붙여지는 地名에는 그 지역의 自然, 文化, 傳統 등을 고려한 아름답고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IV. 聚落名の 類型別 分析

A. 空間關係 聚落名

本 研究의 조사지역인 濟州道는 空間關係 聚落名이 특히 많이 나타난 곳으로 일제시대에 비해 현대에 3배 이상 증가하여 自然 및 人文條件 關係 聚落名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上下, 内外, 前後, 方位(東西南北), 方向(너머, 건너, 끝, 구석)에 規模類(大小, 長短, 廣狹), 身體構造類(머리, 목, 귀, 눈)를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規模類와 身體構造類 聚落名은 크기를 나타내거나, 머리 부분 등 위치를 지칭하는 것이 많아 空間 關係 聚落名으로 분류하였다.

1. 上下類

表 5에서 上下類 聚落名이 모든 空間關係 聚落名 中에서 가장 높은 出現頻度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環境이나 對象을 二次的으로 分節하여 認知하는 것은 人間의 基本的 必理現象 중의 하나이며 上下類 聚落名은 대체로 地形의 高低에서 비롯되었다. 지형도 조사 결과에서도 거의대부분이 '상동'은 고도가 높고 '하동'은 낮게 나타났으며 고도가 비슷할 경우는 大靜의 '加波里'와 같이 북쪽으로 먼저 취락이 형성된 곳은 '상동'으로 남쪽이며 나중에 형성된 곳은 '하동'으로命名되고 있다. '중동'은 고도가 상·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동'이나 '하동'의 고도와 비슷하게 이어서 분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표 5. 上下, 内外, 先後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頻度

區分 地域	上 下 類					內 外 類			前 後 類		
	上	中	下	高	計	內	外	計	前	後	計
南 元	8 (2.5)	3 (0.9)	9 (2.8)	1 (0.3)	21 (6.5)	1 (2.6)	·	1 (2.6)	1 (3.3)	1 (3.3)	2 (6.7)
大 靜	7 (2.2)	6 (1.8)	14 (4.3)	2 (0.6)	29 (8.9)	1 (2.6)	·	1 (2.6)	3 (10.0)	·	3 (10.0)
城 山	8 (2.5)	4 (1.2)	8 (2.5)	1 (0.3)	21 (6.5)	5 (12.8)	1 (2.6)	6 (15.4)	1 (3.3)	1 (3.3)	2 (6.7)
安 德	5 (1.5)	3 (0.9)	3 (0.9)	·	11 (3.4)	·	·	·	·	·	·
表 善	11 (3.4)	2 (0.6)	10 (3.1)	·	23 (7.1)	2 (5.1)	·	2 (5.1)	·	1 (3.3)	1 (3.3)
舊 左	10 (3.1)	7 (2.2)	11 (3.4)	·	28 (8.6)	·	·	·	4 (13.3)	1 (3.3)	5 (16.7)
牛 島	2 (0.6)	1 (0.3)	2 (0.6)	·	5 (1.5)	1 (2.6)	·	1 (2.6)	1 (3.3)	1 (3.3)	2 (6.7)
涯 月	15 (4.6)	7 (2.2)	15 (4.6)	2 (0.6)	39 (12.0)	4 (10.3)	·	4 (10.3)	1 (3.3)	3 (10.3)	4 (13.3)
朝 天	9 (2.8)	4 (1.2)	8 (2.5)	·	21 (6.5)	·	1 (2.6)	1 (2.6)	·	1 (3.3)	1 (3.3)
楸 子	1 (0.3)	·	1 (0.3)	·	2 (0.6)	·	·	·	·	·	·
翰 京	6 (1.8)	9 (2.8)	4 (1.2)	1 (0.3)	20 (6.2)	4 (10.3)	·	4 (10.3)	2 (6.7)	2 (6.7)	4 (13.3)
翰 林	6 (1.8)	7 (2.2)	5 (1.5)	·	18 (5.5)	2 (5.1)	1 (2.6)	3 (7.7)	1 (3.3)	·	1 (3.3)
西 歸 浦	20 (6.2)	9 (2.8)	19 (5.8)	1 (0.3)	49 (15.1)	2 (5.1)	·	2 (5.1)	1 (3.3)	·	1 (3.3)
濟 州	14 (4.3)	9 (2.8)	15 (4.6)	·	38 (11.7)	9 (23.1)	5 (12.8)	14 (35.9)	2 (6.7)	2 (6.7)	4 (13.3)
計	122 (37.5)	71 (21.8)	124 (38.2)	8 (2.5)	325 (100)	31 (79.5)	8 (20.5)	39 (100)	17 (56.7)	13 (43.3)	30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率 (%)	7.2	4.2	7.3	0.5	19.2	1.8	0.5	2.3	1.0	0.8	1.8

註 : () 안은 백분율임.

本地域의 경우 (上)에는 '웃동네', '上洞', '웃가름', '상원동', '上衣里', '上川里', '웃창고내', '웃토산', '上樞旨', '상고수동', '웃더럭', '웃빌레', '上校洞', '上孝洞', '東上洞', '西上洞', '웃인다라'

(中)에는 '中洞', '중가름', '中嚴莊', '중동네', '중대리', '중문동'

(下)에는 '알동네', '下洞', '山下洞', '下房求', '아릿무드네', '下貴泉', '東下洞', '西下洞', '下田洞', '하예촌', '하모슬리', '알 막은굴 동네', '下川里', '下德泉', '알괴', '아랫동네', '下加里', '아랫카름'

(高)에는 '고바치(高田洞)', '高山里', '高內浦' 등의 聚落名이 나타났다.

그 分布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歸浦, 涯月, 濟州 등이 높은 頻度를 나타내며 安德, 牛島, 楸子 등이 낮은 頻度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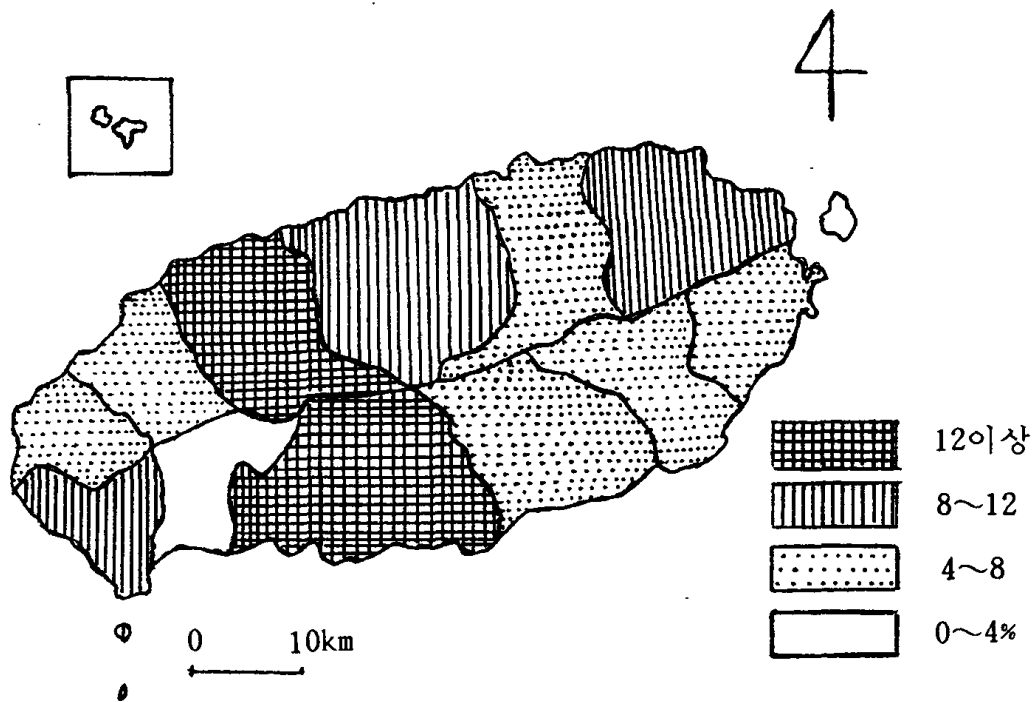


그림 3. 上下類 聚落名の 地域別 分布

全體聚落名中 上下類가 차지하는 比率은 19.2%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濟州道가 해방후 과수원 관광지 등의 개발로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어 전입인구가 많아졌으며 영남, 호남, 호서지방의 인구는 절대 감소 현상을 보인데 비하여 濟州道는 서울, 부산 및 일부 대도시와 경기지방에 이어 높은 인구 성장을 보인 곳¹⁶으로 취락수가 늘어나 行政區域 單位의 增大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行政聚落名の 命名에 편의상 ‘上洞’, ‘下洞’, ‘東上洞’, ‘西下洞’, ‘中上洞’, ‘中下洞’ 등의 聚落名을 많이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涯月의 納邑里는 일제 시대에 취락명이 納邑里 1개였으나 현대에 와서 8개로 증가되었다. 모두가 상하류에 방위류를 합하여 命名된 것으로 ‘동상동’, ‘동하동’, ‘서상동’, ‘서중동’, ‘서하동’, ‘동동’, ‘동중동’ 등이 있다.

2. 内外類

内外類 聚落名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型이 外型 보다 높은 出現頻度を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서 聚落의 형성이 배산임수 지형에 이루어지게 되며 血緣, 防禦關係上으로 外型보다 內型の 頻度가 높게 나타난다. 안말이 바깥말에 비해 高度가 높고 먼저 形成되었는데 이는 閉鎖空間選好傾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낮은 位置의 聚落일수록 開放的이고 들어가기 쉬우며 먼저 통과한다는 잇점이 있으며 반면 높은 위치는 閉鎖的이고 들어가기 어려우며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意味를 갖는다¹⁷.

本 地域에서 지형도 조사 결과 城門을 경계로 하여 内外 취락명이 같이 분포

¹⁶李喜演(1989). 『人口地理學』 (서울: 法文社), pp. 95-106.

¹⁷송보영, 최형식(1984). 거주형태와 취락형태간의 문화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환경 연구』, 第5卷(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pp. 44-45.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주로 內에 관한 취락명 만이 나타나고 있다. 內취락명은 대부분 도로와 큰 마을에서 떨어져 약간 높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內취락명에는 ‘안카름’, ‘안골’, ‘안밭’, ‘城內洞’, ‘안동네’, ‘안비양’, ‘안좌동’, ‘뒷통안’, ‘명월성안’, ‘內都洞’, ‘진올레안’, ‘내강정’, ‘남문내’, ‘목안’ 등이 있다.

外취락명에는 ‘外田洞’, ‘동문밖’, ‘서문밖’, ‘천외동’ 등이 나타나며 城山, 濟州, 涯月, 翰京 등지에서 높은 頻度を 보이고 安德, 舊左, 楸子 등지에서 낮은 頻度を 나타내고 있다. 城山 地域은 古城里, 城山里 등지에 城이 많이 축조되어 城과 城門에 관련된 내외 취락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3. 前後類

前後類 聚落名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空間關係 聚落名에 비해 出現頻도가 낮은 편으로 육지의 대부분 地域이 ‘前’보다 ‘後’의 聚落名이 많은 것으로 既存文獻¹⁸⁾은 밝히고 있으나 濟州道의 경우 ‘後’보다 ‘前’의 頻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 있다. 지형도를 보면 內外類와 마찬가지로 前後類가 취락이 형성된 순서나 방향별로 같이 命名된 것이 아니고 각각 큰 특징있는 地名의 앞이나 뒤쪽을 가리켜 命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산 지역의 ‘앞벵디’는 ‘벵디가름’의 앞쪽에 형성된 취락의 명칭이며 ‘벵디가름’에 비해 규모가 작고 뒷쪽을 가리키는 聚落名은 발견되지 않았다.

‘前’으로는 ‘앞동네’, ‘望前’, ‘전지동’, ‘앞빌레왓’, ‘前港洞’, ‘앞방올레’,

¹⁸⁾李桓坤(1986), p. 12.

‘창고앞’, ‘앞거리동네’, ‘앞개’, ‘前沙洞’, ‘앞동산’, ‘이앞에’,

‘後’에는 ‘뒷못동’, ‘뒷동네’, ‘병뒤독’, ‘뒷물’, ‘뒷동산’, ‘창뒷골(창후동)’, ‘뒷바당(后海洞)’, ‘뒷가름’, ‘영뒷골(영후동)’이 있다.

4. 方位類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西南北 4方向에서 東型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다음은 西, 南, 北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위는 취락입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地形上 山勢가 서남쪽으로 뻗어 있어 背山을 하게 되면 남동쪽의 좋은 방향을 마주하여 가장 양호한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산이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아 주어 취락의 最適地가 되며, 또한 예로부터 東方重視의 思考에서 東=새(新), 日出, 光明, 榮華 등의 관계가 成立되어¹⁹⁾ 聚落名 中 東의 頻度가 가장 높고 대응되는 지역으로 西型이 東型 다음으로 분포하며 北型은 극히 소수 분포한다.

全體聚落名에서 方位類가 차지하는 比率은 17.5%로 공간 관계 취락명 중 상하류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인구 성장과 더불어 行政區域單位의 增大에 따라 行政聚落名の 命名시 편의상 東西南北 方位類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일제 시대보다 현대에 와서 급격히 증가된 취락명 중 上下類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聚落名에 해당된다.

¹⁹⁾姜吉夫(1983). 풍수지리설의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 봄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62.

표 6. 方位, 方向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頻度

區分 地域	方 位 類					方 向 類		
	東	西	南	北	計	너머, 건너 편	끝, 구석	計
南 元	4 (1.4)	9 (3.1)	3 (1.0)	·	16 (5.4)	·	1 (33.3)	1 (33.3)
大 靜	5 (1.7)	9 (3.1)	·	·	14 (4.7)	·	·	·
城 山	7 (2.4)	5 (1.7)	4 (1.4)	·	16 (5.4)	·	·	·
安 德	6 (2.0)	3 (1.0)	3 (1.0)	·	12 (4.1)	·	1 (33.3)	1 (33.3)
表 善	8 (2.7)	8 (2.7)	2 (0.7)	·	18 (6.1)	·	·	·
舊 左	14 (4.7)	13 (4.4)	5 (1.7)	·	32 (10.8)	·	·	·
牛 島	1 (0.3)	1 (0.3)	·	·	2 (0.7)	·	·	·
涯 月	25 (8.5)	22 (7.5)	3 (1.0)	·	50 (16.9)	·	·	·
朝 天	5 (1.7)	3 (1.0)	·	1 (0.3)	9 (3.1)	·	1 (33.3)	1 (33.3)
楸 子	2 (0.7)	3 (1.0)	·	·	5 (1.7)	·	·	·
翰 京	4 (1.4)	5 (1.7)	1 (0.3)	·	10 (3.4)	·	·	·
翰 林	12 (4.1)	10 (3.4)	3 (1.0)	1 (1.0)	26 (8.8)	·	·	·
西 歸 浦	14 (4.7)	14 (4.7)	4 (1.4)	·	32 (10.8)	·	·	·
濟 州	25 (8.5)	18 (6.1)	8 (2.7)	2 (0.7)	53 (18.0)	·	·	·
計	132 (44.7)	123 (41.7)	36 (12.2)	4 (1.4)	295 (100)	0 (0)	3 (100)	3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7.8	7.3	2.1	0.2	17.5	0	0.2	0.2

註 : () 안은 백분율임

지형도를 보면 上下類 취락은 해발 고도의 차이가 10~30m로 고도 차이가 큰 데 비해 東西 方位의 취락은 고도가 서로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 5~10m정도로 고도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翰林의 上明里는 동동과 서동이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지 않고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나 해안가에 가까운 북쪽 지역을 '동동'으로, 남쪽이지만 내륙쪽을 '서동'으로 命名하고 있다.

東에는 '동동네', '동카름', '동동', '東日里', '동상동', '東衣里', '동문동', '東廣里', '東金寧里', '漢東里', '東城洞', '東貴里', '동모살', '동너분발', '東下洞', '東溪洞', '새시(동쪽)', '東上孝', '東回泉',

西에는 '섯동네', '川西洞', '西保閑', '서림개', '西金寧里', '섯모살', '서사라', '大西里', '西衣里', '서카름', '西城洞', '서동', '西上洞', '西下洞', '섯너분발', '西歸洞', '서과양', '漢川西洞',

北에는 '북촌', '북동', '禾北洞', '北射場' 등이 있다.

分布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舊左, 涯月, 西歸浦, 濟州가 높은 頻度를 나타내며 安德, 牛島, 朝天, 楸子, 大靜, 翰京 등지가 낮은 出現頻度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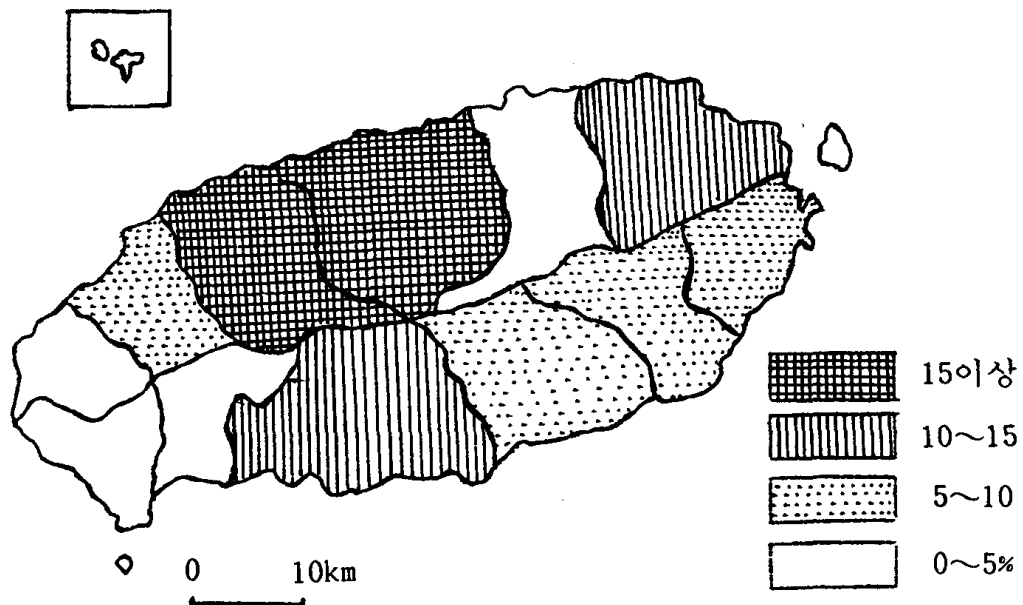


그림 4. 方位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5. 方向類

方向類 聚落名에는 ~편, ~너머, ~건너, ~끝, ~구석 등이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道는 方向類 聚落名이 모두 3개에 불과하나 江華郡의 경우 54개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분포하는 ~편, ~너머, ~건너 聚落名이 濟州道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고립된 文化屬性을 유지하여 온 관계로 육지와 언어 양식이 크게 다른 특이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方向類 聚落名으로는 ‘불목끝동산’, ‘함박구석’, ‘불땔낭구석’이며 ‘불목끝동산’은 대장간이 있는 곳의 동산쪽 끝의 동네를 가리키고 ‘함박구석’은 ‘원물오름’ 밑에 있는 동네로, 安德의 東廣里에서 멀리 떨어져 구석으로 인지되는 방향을 뜻하며 ‘불땔낭구석’은 땔나무가 많은 숲이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聚落名이다. 분포 지역은 南元, 安德, 朝天에 각각 1개씩 分布한다.

6. 規模類

規模類 聚落名에는 大, 小, 長, 短, 廣, 狹 등이 있으나, 本地域에서 短과 狹은 全無하기 때문에 大, 小, 長, 廣 4가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표 7과 같이 大型이 가장 높은 頻度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廣→長→小의 순으로 나타났다.

大字聚落名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聚落의 규모가 반드시 크기 때문이 아니라, 크게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命名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規模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頻度

區分 地域		規 模 類				
		大	小	長	廣	計
南 元		4 (3.8)	1 (1.0)	1 (1.0)	1 (1.0)	7 (6.7)
大 靜		4 (3.8)	・	1 (1.0)	・	5 (4.8)
城 山		3 (2.9)	・	・	・	3 (2.9)
安 德		6 (5.8)	・	・	6 (5.8)	12 (11.5)
表 善		・	・	・	2 (1.9)	2 (1.9)
舊 左		8 (7.7)	・	1 (1.0)	1 (1.0)	10 (9.6)
牛 島		・	・	・	・	・
涯 月		3 (2.9)	2 (1.9)	4 (3.8)	5 (4.8)	14 (13.5)
朝 天		5 (4.8)	・	1 (1.0)	・	6 (5.8)
楸 子		2 (1.9)	2 (1.9)	1 (1.0)	・	5 (4.8)
翰 京		4 (3.8)	・	1 (1.0)	2 (1.9)	7 (6.7)
翰 林		10 (9.6)	・	4 (3.8)	1 (1.0)	15 (14.4)
西 歸 浦		4 (3.8)	・	1 (1.0)	・	5 (4.8)
濟 州		7 (6.7)	・	2 (1.9)	4 (3.8)	13 (12.5)
計		60 (57.7)	5 (4.8)	17 (16.3)	22 (21.2)	104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率 (%)		3.6	0.3	1.0	1.3	6.2

註 : () 안은 백분율임

예전에는 가구수가 많아 큰 마을을 이루었던 곳도 생활 여건이 불리해져 2호만이 거주하는 취락도 있으나 명칭은 계속 '큰'자가 붙여져 지칭되고 있다. 大靜의 日果里에 '큰동네'도 큰도로변 주변에 위치해 있으나 규모는 주변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聚落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순수 우리말 지명이 漢字名으로 많이 바뀐 것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큰물→大水洞, 한밭(큰밭동네)→大田洞, 넓밭동네→廣田, 한짓골→大路洞, 큰담밭→大垣洞, 너버홀(넓은습지)→廣屹洞 이는 日帝時代에 地圖化 作業過程에서 이루어진 漢字聚落名 들이다.

大에는 '대전동', '큰동네', '大村部落', '한동네', '큰가름', '大和洞', '大坪里', '큰가스랏동네', '한홀',

小에는 '작은작지', '작은예초', '조근목암', '서소동',

長으로는 '장성동', '長田洞', '진밭동네', '진수리=진술=긴숲', '진올안', '長路洞', '長作只', '水長洞', '長興洞',

廣에는 '廣池洞', '廣坪里', '西廣里', '廣田', '廣石洞', '너버홀', '너븐태역', '광정밭' 등이 있다.

分布地域을 보면 그림 5와 같이 安德, 舊左, 涯月, 翰林, 濟州 등지에서 높은 頻度를 나타냈으며 大靜, 城山, 表善, 牛島, 楸子, 西歸浦에서 낮은 頻度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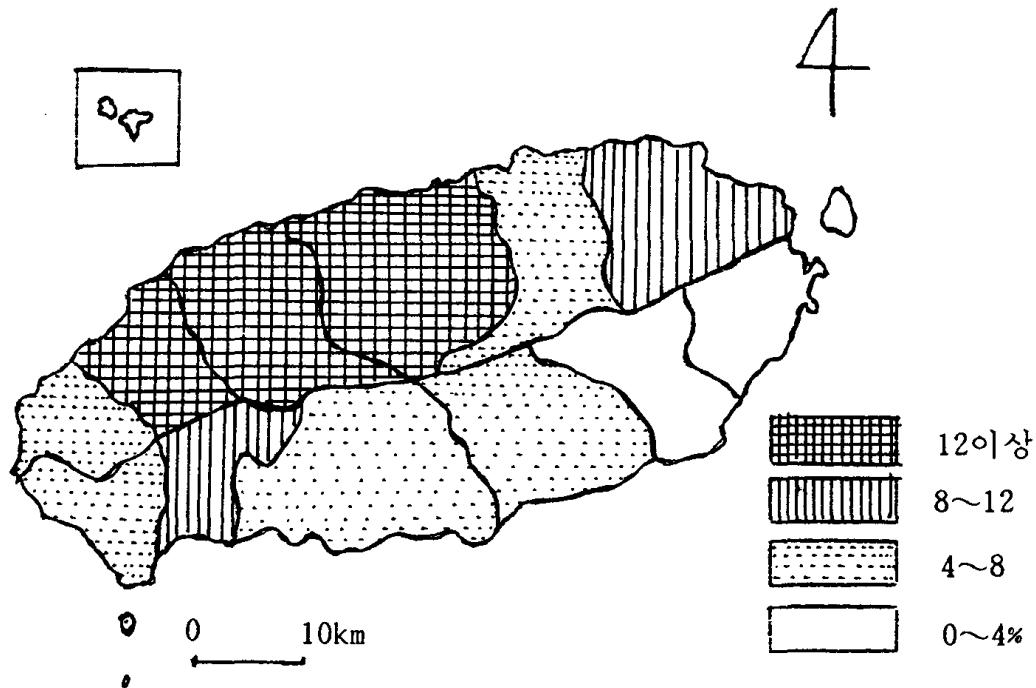


그림 5. 規模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7. 身體構造類

身體構造類 聚落名에는 머리(頭), 목(項), 귀(耳), 눈(目) 등이 있다. 全體 聚落名에 대한 比率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身體構造類 地名은 地形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命名된 '용머리'와 같이 地形의 形態를 나타낼 때 붙여진 경우가 많아 地形地名에 많이 나타나고 聚落名은 적은 편이다.

머리(頭)에는 '영머리왓', '골머리', '석두머리', '頭毛里', '검은덕머리', '魚頭洞', '道頭洞', '뱃머릿가름' 등이 있다. 머리는 우두머리(頭目)를 나타내며 정상이나 돌출한 곳을 頭角이라 하여 해안이나 하안에 머리 지명을 많이 볼 수 있다. 翰京의 '頭毛里'는 제주도 西端으로 머리쪽을 의미하며 제주시의 '뱃머릿가름'은 배를 대는 뱃머릿개가의 마을을 가리킨다.

목(項)으로는 ‘터진목’, ‘당진목’, ‘군홍질목’, ‘검정목골’, ‘산지목골’, ‘도목골’ 등이 있다. ‘목’은 河岸에 형성된 사주(sand bar)나 高山의 고개를 뜻하는데 城山의 고성리에서 성산리에 이르는 좁은 길목을 가르키는 ‘터진목’은 1940년초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조수에 의하여 마을 입구가 열리고 닫히던 자연 수문이었던 곳으로, 육지와 간신히 이어져 있는 목이었다는 데서 命名된 것이다. 귀(耳)에는 돌귀동(猪耳洞 ; 돼지귀처럼 생김)이 있으며, 눈(目)으로는 ‘기눈(게의 눈처럼 생김)’, ‘牛目洞’, ‘개눈못’ 등이 있다. 分布地域은 牛島와 濟州가 높은 頻度を 나타내고 南元, 大靜, 城山, 涯月, 楸子, 翰京, 西歸浦에서 낮은 頻度を 보이고 있다.

표 8. 身體構造類 聚落名の 地域別 出現頻度

地域	區分	身 體 構 造 類			
		머리	목	귀·눈	計
南	元	·	·	·	·
大	靜	·	·	1(3.8)	1(3.8)
城	山	·	1(3.8)	·	1(3.8)
安	德	2(7.7)	·	·	2(7.7)
表	善	2(7.7)	·	·	2(7.7)
舊	左	1(3.8)	1(3.8)	·	2(7.7)
牛	島	·	·	3(11.5)	3(11.5)
涯	月	1(3.8)	·	·	1(3.8)
朝	天	·	2(7.7)	·	2(7.7)
楸	子	1(3.8)	·	·	1(3.8)
翰	京	1(3.8)	·	·	1(3.8)
翰	林	2(7.7)	·	·	2(7.7)
西	歸 浦	1(3.8)	·	·	1(3.8)
濟	州	2(7.7)	3(11.5)	2(7.7)	7(26.9)
計		13(50.0)	7(26.9)	6(23.1)	26(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率 (%)		0.8	0.4	0.4	1.5

註 : () 안은 백분율임

B. 自然條件 關係 聚落名

1. 地形類

人間生活은 地表空間, 즉 土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自然條件 關係 地名 가운데서도 地形에 關한 것이 가장 많다. 이것은 人間의 住居와 地形의 密着性을 뜻하며, 外國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²⁰. 本 研究地域의 경우도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自然條件 關係 聚落名 中 地形類가 78.4%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地形이 옛부터 人間 生活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 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地形에 관한 지명은 단순히 地形의 특징만을 表現한 것이 아니라, 그 地域의 生活까지 內包하고 있다.

가. 山系

地形을 反映한 山系 聚落名에는 山, 岳, 旨, 岩, 石, 才, 崖, 窟, 골(谷)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이 分布하는 聚落名은 山과 岳으로 나타났다.

山系 聚落名の 分布地域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涯月, 朝天, 濟州에서 높은 頻度를 나타내며 大靜, 牛島, 楸子 등지는 頻度가 낮게 나타났다.

²⁰李敦柱(1966). 全南地方의 地名에 使用된 漢字語의 分析的 연구. 『全南大論文輯』, 第12卷, p. 136.

표 9. 地形類 聚落名の 地域別 出現頻度

區 分 地 域	山 系						
	山	岳・旨	石	고개· 崖	窟	골	小 計
南 元	2 (0.9)	4 (1.7)	2 (0.9)	1 (0.4)	1 (0.4)	1 (0.4)	11 (3.9)
大 靜	1 (0.4)	3 (1.3)	·	·	·	1 (0.4)	5 (2.1)
城 山	4 (1.7)	4 (1.7)	·	·	·	·	8 (3.4)
安 德	3 (1.3)	2 (0.9)	1 (0.4)	1 (0.4)	·	·	7 (3.0)
表 善	3 (1.3)	9 (3.8)	·	·	1 (0.4)	1 (0.4)	14 (6.0)
舊 左	2 (0.9)	3 (1.3)	·	1 (0.4)	4 (1.7)	2 (0.9)	12 (5.1)
牛 島	·	1 (0.4)	·	·	·	·	1 (0.4)
涯 月	2 (0.9)	14 (6.0)	8 (3.4)	3 (1.3)	·	4 (1.7)	31 (13.2)
朝 天	1 (0.4)	10 (4.3)	5 (2.1)	7 (3.0)	2 (0.9)	5 (2.1)	30 (12.8)
楸 子	·	·	·	·	·	·	·
翰 京	2 (0.9)	9 (3.8)	3 (1.3)	·	1 (0.4)	1 (0.4)	16 (6.8)
翰 林	1 (0.4)	5 (2.1)	5 (2.1)	1 (0.4)	2 (0.9)	5 (2.1)	19 (8.1)
西 歸 浦	4 (1.7)	6 (2.6)	2 (0.9)	·	1 (0.4)	5 (2.1)	18 (7.7)
濟 州	7 (3.0)	14 (6.0)	5 (2.1)	2 (0.9)	4 (1.7)	31 (13.2)	63 (26.8)
計	32 (13.6)	84 (35.7)	31 (13.2)	16 (6.8)	16 (6.8)	56 (23.8)	235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1.9	5.0	1.8	0.9	0.9	3.3	13.9

註 : () 안은 백분율임

區 分 地 域	水 系					平野系	總 計
	江・川 곡천	水・井 泉	湖沼	浦・串	小計	坪・伐	
南 元	1 (0.3)	7 (2.3)	5 (1.6)	5 (1.6)	18 (5.8)	2 (4.3)	31 (4.9)
大 靜	1 (0.3)	7 (2.3)	3 (1.0)	6 (1.9)	17 (5.5)	3 (6.5)	28 (4.4)
城 山	4 (1.3)	5 (1.6)	6 (1.9)	5 (1.6)	20 (6.5)	3 (6.5)	31 (4.9)
安 德	3 (1.0)	3 (1.0)	4 (1.3)	2 (0.6)	12 (3.9)	3 (6.5)	28 (4.4)
表 善	3 (1.0)	2 (0.6)	4 (1.3)	2 (0.6)	11 (3.5)	1 (2.2)	27 (4.2)
舊 左	2 (0.6)	11 (3.5)	3 (1.0)	10 (3.2)	26 (8.4)	2 (4.3)	43 (6.8)
牛 島	・	3 (1.0)	・	7 (2.3)	10 (3.2)	1 (2.2)	14 (2.2)
涯 月	2 (0.6)	9 (2.9)	3 (1.0)	8 (2.6)	22 (7.1)	6 (13.0)	60 (9.4)
朝 天	2 (0.6)	13 (4.2)	10 (3.2)	8 (2.6)	33 (10.6)	2 (4.3)	71 (11.2)
楸 子	・	・	・	・	・	・	・
翰 京	1 (0.3)	13 (4.2)	7 (2.3)	5 (1.6)	26 (8.4)	・	43 (6.8)
翰 林	2 (0.6)	5 (1.6)	4 (1.3)	9 (2.9)	20 (6.5)	2 (4.3)	46 (7.2)
西 歸 浦	10 (3.2)	8 (2.6)	2 (0.6)	4 (1.3)	24 (7.7)	4 (8.7)	52 (8.2)
濟 州	19 (6.1)	18 (5.8)	9 (2.9)	25 (8.1)	71 (22.9)	17 (37.0)	162 (25.5)
計	50 (16.1)	104 (33.5)	60 (19.4)	96 (31.0)	310 (100)	46 (100)	636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3.0	6.2	3.6	5.7	18.3	2.7	37.6

註 : () 안은 백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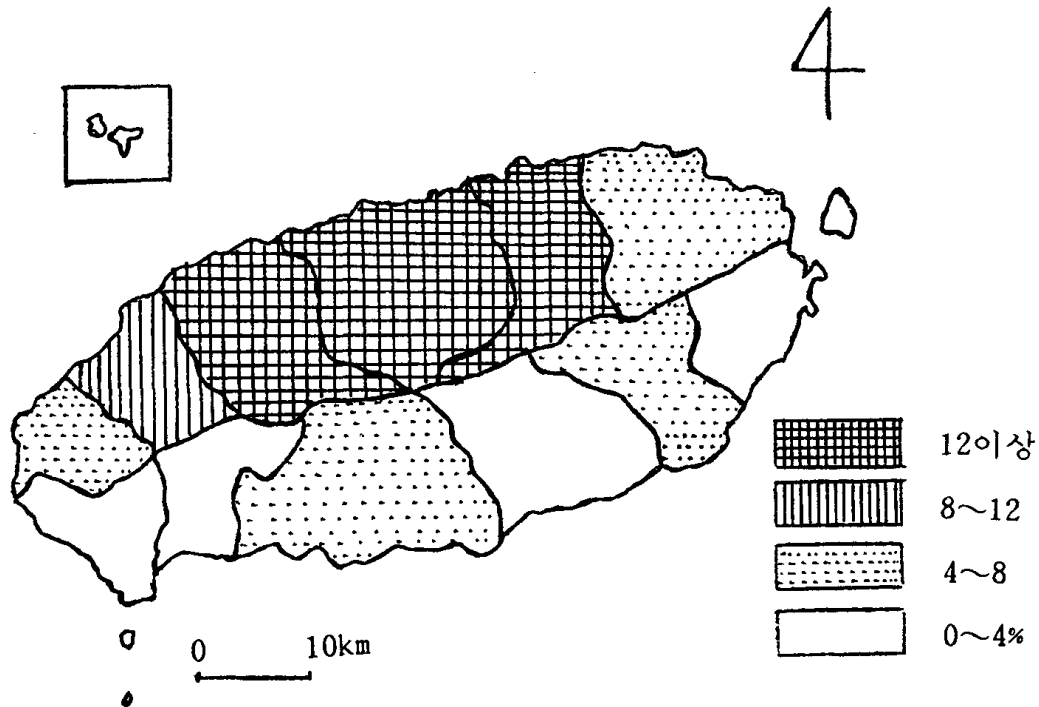


그림 6. 地形類(山系)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1) 山, 岳, 旨

濟州道에서는 산 이름이 대부분 岳字를 붙이고 있으나 [오름]이라고 발음한다. 漢拏山の 200개가 넘는 寄生火山 가운데 峰, 山字가 붙은 山은 각각 40개, 35개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오름[岳]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해안가까지의 산에는 山, 峰이 많고 內陸山門部 지역의 산에는 오름[岳]이 많다. 또한 산에 오름[岳] 다음으로 마루[旨]라는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다. 平地에 고립되어 있는 산을 마루[旨]라고 부르며 濟州道外에서는 보지 못하는 울[兀], 쉬등으로 부르는 山이 있으며 또 望, 굴부리 등의 산도 있어서 특이하다.²¹⁾

山과 岳, 旨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濟州道에서는 山이 32개, 岳, 旨가 84개

²¹⁾ 李泳澤(1986), p. 122.

로 岳, 旨 聚落名이 월등히 많다.

山 聚落名으로는 ‘月山洞’, ‘山下洞’, ‘山伊水洞’, ‘水山里’, ‘城山里’, ‘山房洞’, ‘新山里’, ‘兎山里’, ‘柑山里’, ‘臥山里’, ‘高山里’, ‘山陽里’, ‘진동산’, ‘동산가름’, ‘弓山洞’,

岳, 旨, 岩, 峰, 望 등의 山系 聚落名으로는 ‘鳥旨里’ ‘水岳洞’, ‘望前’, ‘암막르’, ‘알봉동’, ‘馬羅島’, ‘東流岩’, ‘川望洞’, ‘月旨洞’, ‘지조악’, ‘樅旨洞’, ‘靈旨洞’, ‘安坐岳’, ‘다랑쉬동’, ‘오름새끼동’, ‘곽오름’, ‘오름동네’, ‘갓머를(갓마루)’, ‘堂岳洞’, ‘삼수물(삼수막르, 삼수마루)’, ‘望古洞’, ‘楮旨里’, ‘가마오름’, ‘엉모르(언덕마루)’, ‘고사리오름’, ‘천아악동’, ‘거문오름(수岳)’, ‘加加岳洞’, ‘牛步岳洞’, ‘龍頭岩’, ‘신산마루’ 등이 있다.

山系 聚落名과 해발 고도와의 관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 山系 聚落名의 빈도가 높은 곳이 평균 고도도 80m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빈도가 낮은 곳은 평균 고도가 40m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安德은 예외 지역으로 평균 고도가 163.6m로 本地域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나 山系 취락명의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安德은 고도 620m의 ‘마통동’과 같은 경계 활동류 취락명이 높은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평균 고도가 높게 나타난 곳이다.

(2) 돌(石), 窟

돌(石)에 관한 聚落名은 三多(돌, 바람, 여자)의 濟州道가 31개로 7개인 江華郡에 비해 월등히 많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돌에 대한 명칭도 다양하여 ‘빌레(너럭바위)’, ‘작지(자갈)’, ‘보말(잔돌)’, ‘방구(바위)’, ‘수덕(돌너덜)’, ‘먹돌(검은돌)’ 등이 있다. 窟에 관한 聚落名도 강화군이 1개인데 비해 玄武岩 火

山地帶에 독특한 熔岩窟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제주도가 16개로 훨씬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돌(石) 聚落名으로 ‘방구동’, ‘보말동’, ‘빌레카름’, ‘石동네’, ‘어림빌레’, ‘廣石洞(너분돌거리)’, ‘작지왓’, ‘곡갱이빌레’, ‘빌레못’, ‘강씨빌레’, ‘과래빌레’, ‘등돌거리’, ‘앞빌레왓’, ‘빌레내’, ‘수덕이동네’, ‘웃빌레’, ‘수덕밭’, ‘먹돌생이’ 등이 있다.

窟에는 ‘窟田洞’, ‘막은굴동네’, ‘굴칩’, ‘窟洞’, ‘검은굴’, ‘알괴(아래굴)’, ‘웃괴(윗굴)’, ‘강남굴’, ‘웬당굴’, ‘백해굴왓’, ‘굴왓동네’, ‘송굴왓(빗물이 흘러드는 땅굴이 있는 밭)’, ‘꿇동산(괴=굴)’, ‘수낭굴’, ‘중뎡이굴’, ‘궤물(궤=땅굴)’, ‘괴랑’, ‘택굴’ 등이 있다.

(3) 고개(才), 언덕(崖)

고개란 山稜線의 鞍部를 말하며, 山地의 양쪽 사면을 연락하는 교통로로 이용된다. 고개를 나타내는 ‘嶺’은 큰 고개에 많이 쓰이며 ‘峴’은 嶺보다 작은 고개를 뜻한다. 日帝時代에 ‘峙’가 급격히 늘어 전체의 61%를 차지하게 된 것은 峙가 日本語 ‘峠’과 의미가 같아서 日帝가 우리나라 地名에 마구 사용한 까닭이다. 그런데 現代에 와서 峙가 12.7%로 급격히 줄고 한글화된 ‘고개’, 또는 ‘재’가 77.6%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광복 이후 우리의 주체성을 찾자는 자각에서 모두 노력했기 때문이다²².

언덕은 산이 무너졌거나 하천이 흐르면서 양쪽 언덕을 侵蝕하여 된 급한 傾斜地를 뜻한다. 崖는 산에 따른 벼랑, 낭떠러지를 가리키고 岸은 물에 따른 벼랑

²²李賢英(1979). 한국 도시의 言語景觀,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9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p. 73.

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고개 聚落名은 ‘防龜嶺’, ‘독바령’, ‘굴치’, ‘도하치’ 등이 있고 강화군에 많이 나타나는 고개, 峴 聚落名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주도가 평지와 산지를 연결하는 고개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취락이 주로 해안 지역에 발달하여 산지와 평지간의 경제적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언덕에 관한 聚落名은 낭떠러지 뜻인 ‘엉장’이 변하여 붙여진 ‘舊巖里(구엄장)’, ‘重巖里(중엄장)’, ‘新巖里(신엄장)’ 등이 있고 ‘엉모르(언덕마루)’, ‘낭알(낭아래)’, ‘일내낭끝’, ‘처낭골’, ‘수낭골’ 등이 있어 고개名 보다 언덕名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4) 골(谷)

‘골’의 그 淵源은 고구려계 지명 接尾辭 ‘忽’에서 부터 시작된다. 대개 山谷이나 盆地를 나타내며 地形條件에서 錄由되어 ‘縣, 邑, 都成村落’ 또는 ‘住宅의集團’을 指稱하는 語辭로 轉化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³.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되었던 江華郡은 골 聚落名이 전체지명의 16.7%를 차지하여 地形類 聚落名 중에서 가장 높은 頻度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濟州道는 육지와 다르게 극히 드문 분포를 보여 전체 聚落名 중 3.3%에 불과하다.

골 聚落名에는 ‘평목골’, ‘진뱅이골’, ‘곤골’, ‘큰골’, ‘배낭골’, ‘물골’, ‘베랫골’, ‘주승골’, ‘조성골’, ‘음부골’, ‘맹랑골’, ‘처낭골’, ‘거릿골’, ‘선내골’, ‘저은골’, ‘막은골’, ‘정동골’, ‘언골’, ‘막은골’, ‘객삿골’, ‘상청골’, ‘검정목골’, ‘해젓골’, ‘삿골’ 등이 있다.

²³鄭鎭元(1982). 韓國人の 環境知覺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地理學論叢』, 제9호(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pp. 63-64.

‘山’과 ‘谷’은 서로 관련이 깊어 제주 지역이 ‘山’과 ‘谷’ 취락명의 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육지와와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고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므로 ‘谷’과 같은 육지에서 많이 분포하는 취락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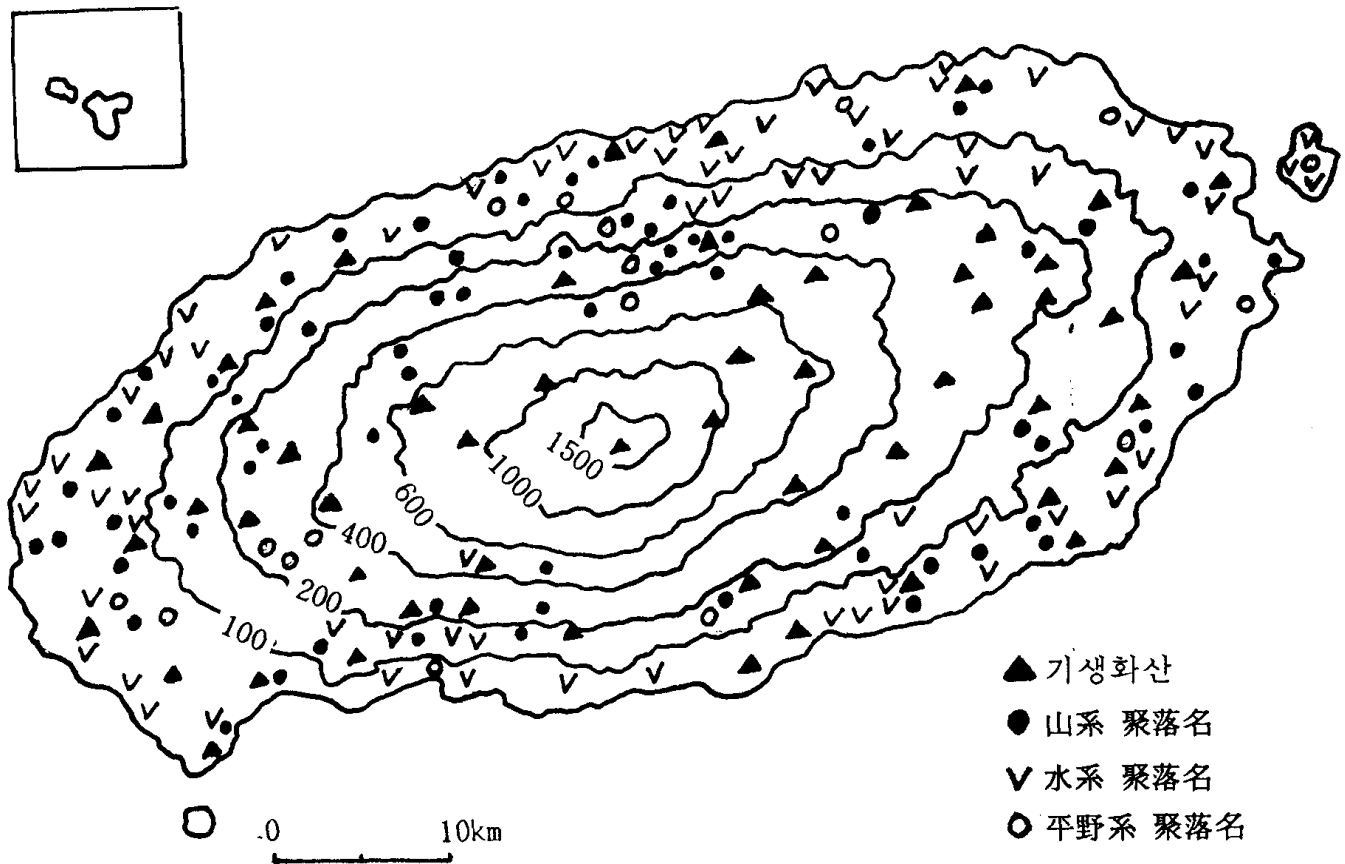


그림 7. 地形類 聚落名の 高度 分布

나. 水系

水系 聚落名에는 水, 川, 폭포, 井, 泉, 湖, 沼 등이 나타나고 海岸地名으로

浦, 串도 도서 지역인 관계로 많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하천을 江이라 하고 작은 하천은 川이라 한다.

河川의 최소 단위는 개울(溪)이며, 개울이 합하여 흐르는 약간 큰 개울을 川이라고 부른다. 濟州道는 火山地帶이므로 河川의 발달은 미약하다. 玄武岩은 多孔質이고 節理와 열하가 많아 빗물이 地下로 스며들기 쉽다. 河川의 流水는 標高 500m 부근에서는 완전히 地下로 스며 川邊을 따라 伏流하며, 기타 빗물이 스며 들어간 地下水도 熔岩層의 경사를 따라 伏流하여 모두가 海岸에 이르러 湧泉帶를 이루고 있다. 海岸地方에의 聚落은 이들 湧泉 소재지에 集村을 이룬다.²⁴⁾ 따라서 濟州道는 물이 귀한 지역이라 山系 聚落名(13.9%)보다 水系 聚落名(18.3%)이 훨씬 높은 頻度를 보이고 있다.

일제 시대에는 모든 취락명 중에서 水系가 18.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현대에도 상하류에 이어 1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平均高度는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용천대가 해안 지대에 분포하므로 地形類중 水系가 63.6m로 가장 낮은 고도를 나타냈다.

分布地域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 朝天, 翰京, 舊左가 높은 頻度를 나타내고 牛島, 楸子, 安德, 表善이 낮게 나타났다.

²⁴⁾姜錫午(1984), p.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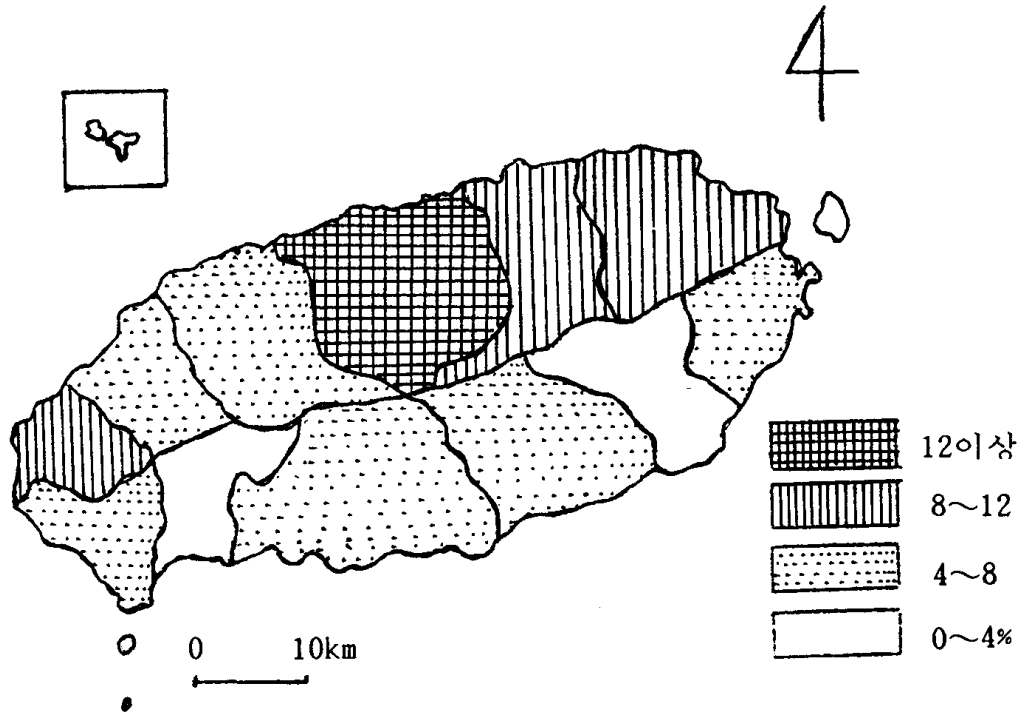


그림 8. 地形類(水系)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1) 江, 川, 폭포

江, 川, 폭포 聚落名이 濟州道가 50개, 江華郡이 22개로 제주도가 지형상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것은, 취락이 물 가까이 입지하는 것 외에는 물에 대한 애착이 강한 데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玄武岩의 용암대지로 된 海岸은 海蝕 斷崖를 이루고 있어 각 계곡에서 흐르는 河水는 이 단애로 부터 직접 바다로 떨어지는 天帝淵, 天池淵, 正房 등의 3개 瀑布가 있어 폭포에 관련된 聚落名도 약간 나타나는 데에 기인한다.

江, 川, 河 聚落名으로는 ‘세천동’, ‘新川里’, ‘上川里’, ‘倉川里’, ‘川望洞’, ‘江華洞’, ‘下川里’, ‘德川里’, ‘大川洞’, ‘빌레내’, ‘칭잇내(종인넷가)’, ‘江月洞’, ‘넷가름’, ‘넷동네’, ‘回水洞(물이 돌아서 흐르므로)’, ‘河源洞’, ‘江

汀洞', '돌송이(석송리 ; 돈다는 뜻으로 曲流에는 石地名이 많이 붙여져 있다)', '무드내', '모르내가름', '닭으내', '새넛가', '도근내', '돌로리', '漢川洞', '沙川' 등이 있다.

폭포에 관련된 聚落名으로는 서귀포시에 '천지동', '正房洞', '川西洞(폭포서쪽)' 등이 있다. 가장 많은 分布를 보인 곳은 濟州와 西歸浦로 나타났다.

(2) 水, 井, 泉

음료수는 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우물에서 얻는다. 그러므로 聚落의 입지조건으로는 우물이 있어서 물을 얻는 곳이 으뜸이었으며 제주도의 湧水泉 聚落 같이 물을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특히 聚落 발생의 입지로 중요시 되어 水, 井, 泉 지명이 대단히 많다.

水, 井, 泉 聚落名은 '水隱洞', '水岳洞', '大水洞(큰물동)', '山伊水洞', '水山里(물되)', '水雲里', '고수동(박수물)', '물쫓동네', '水馬浦', '내차물', '어스르-물', '水田洞(물밭동)', '下貴泉', '洞水洞(곤물동)', '清水洞', '입수동', '面水洞', '물알동네', '溫泉洞', '漢水洞', '물막은거리', '間水洞', '水洞(물골)', '公泉浦', '泉味洞', '샘동산', '通泉洞', '두리물', '德泉', '甘水洞(차고 단샘이 있음)', '입님물', '개물', '소왕물', '과수물', '이승물', '흐리물', '가시물', '억물', '큰물', '당팔물', '뒷물', '배나물', '안갯물', '樂泉里', '漢泉洞' 등이 있으며 水系聚落名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翰京의 '造水里'는 450년전에 개척된 중산간 지역의 농촌으로 물이 귀하여 命名된 聚落名이다.

(3) 湖沼

湖沼지명으로 本 研究地域에 나타나는 것은 池, 淵, 沼, 潭, 屹, 塘 등이다. 池는 못이고 塘은 연못을 뜻하고 沼는 池보다 규모가 더 작고 논에 물을 대어 주는 작은 溜池를 가리킨다. 潭은 沼, 淵의 뜻을 가졌으며 물이 깨끗하고 또한 깊은 소를 말하며 淵은 깊고 멎어 있는 물을 뜻하므로 이러한 강물에는 龍이 살 수 있는 곳이라 하여 龍淵, 龍沼라는 지명이 많다. 屹은 습지, 늪을 가리킨다.²⁵ 湖沼聚落名도 水, 井, 泉 聚落名과 마찬가지로 江華郡(4개)에 비해 濟州道(60개)가 현저히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湖沼聚落名으로는 ‘廣池洞’, ‘뒷못동’, ‘돌귀못동’, ‘前池洞’, ‘한지동’, ‘진못동’, ‘어대못’, ‘늦게동네(늪이 많음)’, ‘道伊淵洞’, ‘성구못’, ‘소낭못동’, ‘봉지동’, ‘赤池洞’, ‘검흘’, ‘沼吉里’, ‘漢潭’, ‘거리못’, ‘臥屹里’, ‘大屹里’, ‘논흘’, ‘속두못’, ‘팔못’, ‘지거흘’, ‘廣屹洞’, ‘여귀못’, ‘불그못’, ‘龍水(용못)’, ‘龍塘里’, ‘池巷洞(못거리동)’, ‘강구못’, ‘못동네’, ‘龍潭’, ‘狗臥池’, ‘德池洞’, ‘海池洞’ 등이 있으며 朝天, 濟州에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해발 고도별로 보면 ‘水’ 취락명이 대부분 낮은 해안 지역에 부포하며 ‘屹’은 100m 내외의 높은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浦, 串

개(浦)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고, 串은 육지가 바다안으로 돌출한 끝부분으로 곶과 고지를 나타낸다.

특히 浦 聚落名이 96개로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聚落名으로는

²⁵李泳澤(1986), pp. 230-36.

‘벌개’, ‘公泉浦’, ‘前浦洞’, ‘網張浦’, ‘서림개’, ‘돈개’, ‘棼瑟浦’, ‘개멀동’, ‘水馬浦’, ‘金露浦’, ‘堂浦’, ‘廣浦’, ‘於登浦’, ‘고는곳(鈿花)’, ‘도의탄포’, ‘배드린개’, ‘펼개동’, ‘갯물’, ‘세배곳’, ‘獨律串’, ‘沙浦’, ‘高內浦’, ‘옛개’, ‘北浦’, ‘瓦浦’, ‘板浦里’, ‘엄수개’, ‘갯동네’, ‘돌개’, ‘翰林浦’, ‘西歸浦’, ‘큰개(大浦洞)’, ‘엄포동’, ‘서흘개’, ‘백포’, ‘건들개’, ‘山底浦’, ‘伐浪浦’, ‘禾北浦’ 등이 있으며 濟州, 舊左, 翰林에서 頻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다에서의 해녀 활동 및 수산업이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해안가는 물론 바다도 경지처럼 분할하여 명칭을 부여한 바다밭 이름도 나타나 있다.

다. 平野系

平野系 地名으로 벌(伐), 들,坪, 平 등이 있다. 지형 조건이 평야 발달에 불리한 本地域은 ‘坪’, ‘平’을 平野뿐 아니라 山間溪谷에 발달한 좁은 평지에도 붙여진 것이 많다.

濟州道에서는 坪垆를 뱅디(버딩)이라는 특유의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산지가 많아 平野系 聚落名이 전체 취락명에 대한 비율이 2.7%로 낮은 편이다.

平野聚落名은 ‘금성머들’, ‘벌개’, ‘탑나니들’, ‘병대(버딩)동’, ‘坪垆洞(뱅디, 버딩)’, ‘번대동(번번한 곳의 마을)’, ‘도련드르(도련:들)’, ‘들생이’, ‘伐浪浦’, ‘운주당드루(들)’, ‘평지동’, ‘新坪里’, ‘평목동’, ‘溫平里’, ‘너븐들(광평)’, ‘大坪(난드르)’, ‘진평동’, ‘演坪里’, ‘귓드르(古坪洞)’, ‘平沙洞’, ‘月坪洞(다랏곳)’, ‘뚫드르(吐坪洞)’, ‘寧坪洞’, ‘황사평’, ‘都坪洞’ 등이 있으며 濟州, 涯月에서 높은 頻도를 보이며 楸子, 翰京, 表善, 牛島에서 頻도가 낮게 나타

났다.

2. 氣象類

自然環境의 하나인 氣候的 環境은 人間生活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人間은 氣候環境에 적응 또는 이용하여 特有의 文化를 이루었다. 어떤 곳의 氣候的 要素가 다른 要素보다 強하게 作用될 때 그것을 기초로 하는 地名이 發生된다²⁶.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要素가 氣溫이고 이것은 日射에 의해 決定된다. 따라서 太陽에 대한 向은 사람이 居住하는 家屋의 坐向을 決定할 때나 家屋이 모여 聚落을 이룰 때나 항상 立地的 條件이 되어 왔다.

本 地域에서는 氣象類 聚落名으로 陰陽과 日, 月, 기타 氣象 要素 聚落名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가. 陰陽

우리나라의 氣候環境으로 볼 때 추위와 더위는 가장 重要的 意味가 있다. 특히 北西 季節風이 불어 닥치는 酷寒은 自然히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陽地를 택하게 된다. 陽地는 南쪽을 向한 場所이고 陰地는 그 反對의 向인 北쪽이거나 地物에 그늘지어 햇빛이 막히는 場所이다. 陰地는 촌락입지로서는 불리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촌락이 없거나 작은 촌락이 立地한다²⁷.

²⁶金連玉(1986). 韓國의 氣候地名에 關한 研究. 『論叢』. 第49輯(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p. 260.

²⁷金連玉(1985). 『韓國의 기후와 문화』(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325.

표 10. 氣象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頻度

區分 地域	氣 象 流			
	陽	陰	日・月 기타	計
南 元	·	·	·	·
大 靜	1 (1.9)	·	4 (7.4)	5 (9.3)
城 山	1 (1.9)	·	1 (1.9)	2 (3.7)
安 德	·	·	1 (1.9)	1 (1.9)
表 善	·	·	·	·
舊 左	·	·	1 (1.9)	1 (1.9)
牛 島	3 (5.6)	·	4 (7.4)	7 (13.0)
涯 月	1 (1.9)	·	6 (11.1)	7 (13.0)
朝 天	1 (1.9)	·	6 (11.1)	7 (13.0)
楸 子	1 (1.9)	·	1 (1.9)	2 (3.7)
翰 京	1 (1.9)	·	1 (1.9)	2 (3.7)
翰 林	·	1 (1.9)	3 (5.6)	4 (7.4)
西 歸 浦	·	·	·	·
濟 州	4 (7.4)	·	12 (22.2)	16 (29.6)
計	13 (24.1)	1 (1.9)	40 (74.1)	54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0.8	0.1	2.4	3.2

註 : () 안은 백분율임

제주도는 海洋性 氣候로서 溫和하며 冬季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냉하나 陸地처럼 혹심하지는 않으며 1월 평균 기온이 $4^{\circ} 6'$ 으로서 육지에 비하면 高溫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햇빛을 받는 조건이 육지처럼 聚落立地나 聚落名 形成에 크게 작용한 것 같지 않으며 陰陽 聚落名이 전체 취락명 중 0.8%에 불과하다.

陰陽 聚落名은 표 10과 같이 '陰'은 1개로 13개인 '陽'에 비해 극히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頻度를 나타내는 곳은 濟州와 牛島이다.

陽에는 '三陽洞', '新陽里', '陽田洞', '陽川洞', '山陽里', '동광양', '飛陽洞' 등이 있다. 翰京의 '山陽里'는 낮은 기생 화산의 남사면 양지 바른 곳에 입지해 있으며 城山の '新陽里'도 남쪽 해안가를 따라 햇빛이 잘드는 지역에 취락이 발달되어 있다.

陰으로는 '음부굴'이 있다. 또한 추자면에는 산이 둘러 싸여 '해가 늦게 뜨므로 '黔里'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도 나타나고 있다.

나. 日, 月, 기타 氣象要素

氣象類 聚落名에서 日, 月과 氣象要素에 관련된 地名도 本地域에서는 陰陽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日, 月 聚落名으로 '日果(날외)', '명달동(밝은 달이)', '東日里', '迎日洞', '朝日里', '明月里' 등이 있으며 기상요소지명 중 바람에 관련된 것은 '바림거리', '하네보기(하늬바람이 자주 분다 함)' 등 2개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바람이 센 곳으로 유명하여 바람에 관련된 聚落名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느 특정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섬 전체에 해당되므로 聚落名에 특별히 命名된 것은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비(雨)에 관련된 것은 '여름비', '베락맞은 동산', '洪水洞' 등이 있으며 구름에 관련된 것으

로는 ‘水雲里’, ‘龍雲洞’, 안개에 관련된 것은 ‘안갯물’ 등이 있다.

氣象類 聚落名 分布地域을 보면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서 계절풍의 바람받이 쪽인 한라산의 북사면에 해당되는 濟州, 牛島, 涯月, 朝天 등지의 頻度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적게 받고 따뜻한 남제주군에 속하는 南元, 表善, 西歸浦 地域에서 낮은 頻度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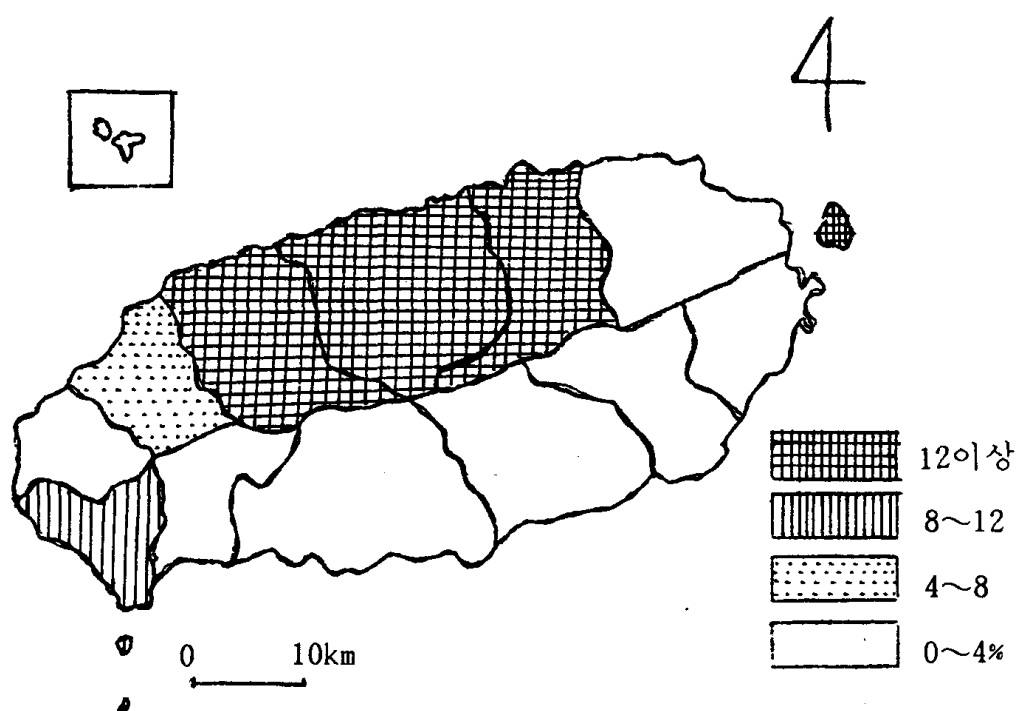


그림 9. 氣象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3. 動·植物類

動·植物은 人間과 더불어 自然環境의 影響을 받으며 살아가고 人間生活과 關係를 맺고 있어 地名에 反映되고 있다.

표 11. 動・植物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頻度

地域	區分	動・植物 類				
		松	林	기타 植物	動物	計
南 元		1 (0.9)	1 (0.9)	2 (1.8)	1 (0.9)	5 (4.4)
大 靜		1 (0.9)	1 (0.9)	4 (3.5)	.	6 (5.3)
城 山		.	.	3 (2.7)	1 (0.9)	4 (3.5)
安 德		2 (1.8)	.	2 (1.8)	2 (1.8)	6 (5.3)
表 善		1 (0.9)	2 (1.8)	4 (3.5)	1 (0.9)	8 (7.1)
舊 左		1 (0.9)	1 (0.9)	4 (3.5)	4 (3.5)	10 (8.8)
牛 島		.	.	.	1 (0.9)	1 (0.9)
涯 月		1 (0.9)	2 (1.8)	10 (8.8)	2 (1.8)	15 (13.3)
朝 天		.	1 (1.9)	6 (5.3)	4 (3.5)	11 (9.7)
楸 子		.	.	.	.	.
翰 京		.	.	6 (5.3)	5 (4.4)	11 (9.7)
翰 林		.	4 (3.5)	3 (2.7)	2 (1.8)	9 (8.0)
西 歸 浦		1 (0.9)	1 (0.9)	3 (2.7)	4 (3.5)	9 (8.0)
濟 州		.	3 (2.7)	11 (9.7)	5 (4.4)	19 (16.8)
計		8 (7.1)	16 (14.2)	58 (51.3)	32 (27.4)	114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0.5	0.9	3.4	1.8	6.7

註 : () 안은 백분율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動物보다 植物關係의 聚落名이 많은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각종 용재나 임산물을 樹木에서 얻고 있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때문으로 생각된다.

動·植物類 聚落名の 分布地域을 보면 그림 10과 같이 濟州, 涯月 地域의 頻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牛島, 城山, 楸子 地域은 頻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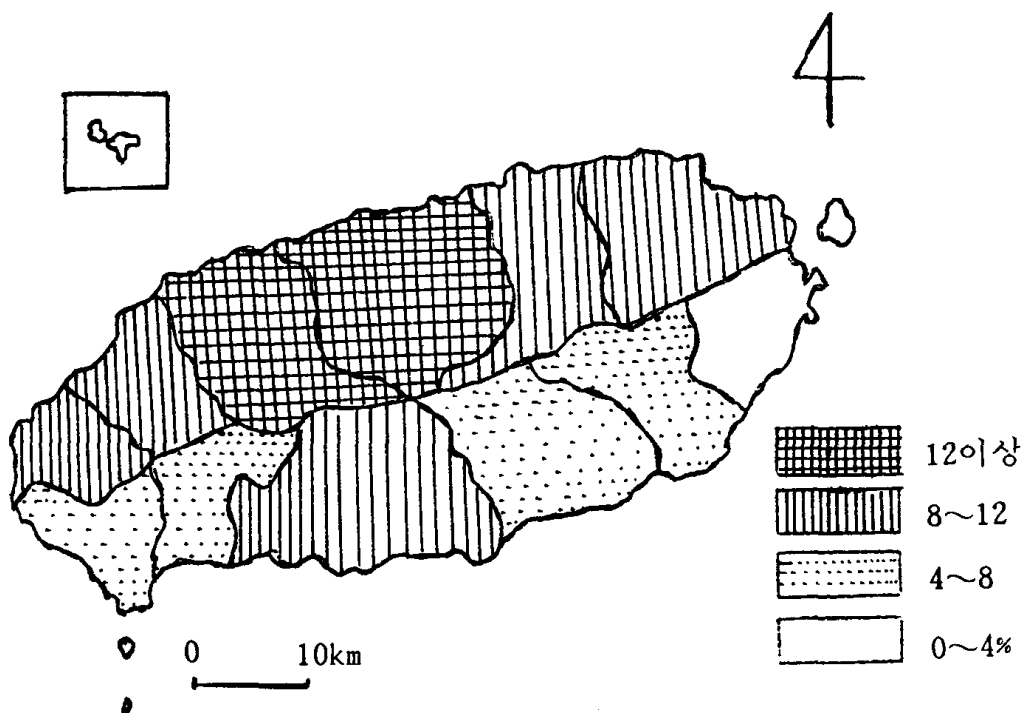


그림 10. 動·植物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가. 植物類

제주도의 植物類 聚落名은 動·植物類 聚落名중 72.6%를 차지하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孤島이고 海洋性 기후로서 온난 多雨하고 地形上垂直的 變化가 있어 植物 종류는 다른 지방보다 훨씬 풍부하다. 대체로 北斜面을 기준하면 700m 이하의 낮은 지대에는 亞熱帶植物이 많으며, 상록활엽수림대로 되어 있다. 700~1200m 까지는 온대활엽수림이며, 1200~1500m 까지는

한대 침엽수림, 1500~1700m까지는 관목림, 1850m 이상의 山頂에는 高山植物帶를 이루고 있다. 南斜面은 기후가 따뜻하므로 北斜面보다 標高가 더 연장되고 있다. 제주도와 강화군의 植物類 聚落名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것과 두 지역 모두 공통으로 분포하는 것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1)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植物聚落名

차 나 무 : ‘차나물산전’, ‘차남동산’, ‘처남밭’

닥 나 무 : ‘당남소’, ‘楮旨里(닥몰)’

비자나무 : ‘榧子洞’

팽 나 무 : ‘평목동’, ‘폭낭걸’, ‘평남밭’

억 새 : ‘어웁동산’

삼 : ‘麻田洞’, ‘加麻里’, ‘너삼밭’

감 굴 : ‘柑山里’, ‘감지낭거리’

나 물 : ‘나물까름동네’

약 초 : ‘공초전’, ‘공추왓’

가시나무 : ‘加時里’, ‘가시물’

당 쿨 : ‘당쿨동’

막개나무 : ‘막개낭거리’

떨 나 무 : ‘불떨낭구석’

아왜나무 : ‘아낭거리’

고 사 리 : ‘고사리오름’

다 랭 이 : ‘일곱도루’

섧 나 무 : ‘挾才里(섧재)’

서 나 무 : ‘서우동’

북 나 무 : ‘甫木洞’

떡갈나무 : ‘처남가름’

자귀나무 : ‘자구나머르’

갈 대 : ‘갈왓’

(2) 제주도, 강화군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植物聚落名

林 : ‘鶴林洞’, ‘西林洞’, ‘大林洞’, ‘정지넷꽃뒤(꽃: 숲)’, ‘두머니꽃(숲)’, ‘翰林里’, ‘古林洞’, ‘핑이수리(숲)’

松 : ‘孤松洞’, ‘松竹洞’, ‘솔동산’, ‘松堂里’, ‘송낭동’, ‘松山洞’

竹 : ‘松竹洞’, ‘竹生洞’, ‘남죽동’, ‘대뿌룩목’, ‘竹城洞’, ‘대통밭’

감나무 : ‘감나무골’, ‘감남밭’

蘭 : ‘蘭山里’, ‘蘭島’

은행 : ‘杏源里’

참나무 : ‘처낭골’

배나무 : ‘배나물’, ‘梨湖洞’

연꽃 : ‘蓮花洞’, ‘蓮洞’

쑥 : ‘막쑥(화약 연료인 약쑥을 재배)’

해발 고도별로 分布 地域을 조사한 결과, 植物類 聚落名은 다른 聚落名과 마찬가지로 200m 이하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곳의 식물을 대상으로 命名되기 때문으로 소나무의 경우, 주로 서식되는 곳은 고도 1200~1500m의 한대 침엽수림이나 취락명으로 나타나는 서귀포의 ‘松山洞’은 고도 10m인 곳에 분포하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 나타나는 식물류 취락명은 약초 생산을 하는 곳인 涯月의 ‘공초전’으로 고도 660m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로 學問이 크게 발달 됨에 따라 楮紙가 많이 쓰였고 또 窓戶紙가 많이 소모되면서 닥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으며 닥나무 산출을 뜻하는 翰京의 楮旨岳과 그 아래에 楮旨里가 있다.

나. 動物類

動物에 關한 地名은 地形의 생김새가 動物의 모양과 비슷하다거나 그 動物이 해당 지역에 棲息한 적이 있어서 由來된다²⁸.

우리나라 地名에 쓰이는 動物名은 龍, 鳳, 鶴, 鷄 등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龍과 鳳은 想像의 動物임에도 東洋에서는 예로부터 聖스러운 動物로 알려졌고 여러 가지 吉祥의 象徵으로 神聖視했다. 本 地域의 聚落名도 이러한 特徵을 反映하며 風水地理와 關聯하여 地形의 생김새를 動物形狀으로 비유한 聚落名이 많다.

動物類 聚落名은 ‘돌귀동(猪耳洞)’, ‘加波里(가오리)’, ‘蛇首洞’, ‘성구못’, ‘蛇盤洞’, ‘용해동’, ‘용머리(2)’, ‘九龍洞’, ‘鷄龍洞’, ‘牛目洞’, ‘개왓’, ‘봉수동’, ‘황계동’, ‘게우선야개(거위못)’, ‘우골동’, ‘龍塘里’, ‘원세기(원숭이)’, ‘龍雲洞’, ‘魚頭洞’, ‘蛇移洞’, ‘龍興洞’, ‘牛步岳洞’, ‘狗臥池’, ‘龍崗洞’, ‘기눈(게눈)’, ‘燕尾’, ‘소와잇동산’, ‘龍潭洞’, ‘活龍洞’ 등이 있다. 龍 10개, 牛 4개, 蛇 3개, 鷄 2개, 개 2개, 그외 돼지, 가오리, 거북이, 거위, 원숭이, 물고기, 게, 제비, 鳳이 1개씩 분포하여, 龍 聚落名이 가장 많았으며 삼림이 무성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뱀과 멧돼지 등의 聚落名이 특이하게 나타나 있다.

²⁸李敦柱(1971). 地名語의 素材와 그 類型에 關한 比較研究. 『한글學會 50돌 記念論文輯』, p. 383.

C. 人文條件 關係 聚落名

定着生活에 들어간 人類는 특정한 장소에 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人爲的인 人文條件을 갖추게 되었다. 본도에는 先史 때의 유적으로 보아 일찍부터 人類가 居住한 고장이란 것을 알 수 있어 自然聚落名 못지 않게 人文條件 關係 聚落名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歷史 및 經濟的 生活相을 위시한 文化・社會的 側面이 고루 聚落名에 反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人文條件에 關係되는 聚落名들을 村落共同體類, 先後類, 經濟活動類, 交易類, 防禦類, 民俗・宗教類, 歷史・傳說類로 區分하여 비교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村落共同體類

人類의 集團居住地域인 村落으로서의 里・洞의 概念은 점차적으로 行政區域의 單位의 概念으로 정립되어 왔다.

三國史記와 三國遺史 등의 古書에서 언급된 里村의 概念은 地域的 또는 空間的 概念은 없었고 人間의 集合地로서 마을(村)을 意味하였던 것에 不過하다.²⁹⁾

江華郡의 村落共同體類 聚落名에는 ‘마을’을 뜻하는 ‘말’과 ‘떨’이 272개나 있으나 제주도에는 ‘말’, ‘떨’ 聚落名이 하나도 분포하지 않았고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름’과 ‘동네’, ‘洞’이 많이 나타났다. 제주도 특유의 우리말 지명인 ‘가름’이나 기타 지명들이 1914년 行政區域 개편 때 漢字化 하는 과

²⁹⁾이성학(1975). 한국 지명에 대한 연구. 『경북대 논문집』 제20권, p. 54.

표 12. 村落共同體類 聚落名の 地域別 出現頻度

區分 地域	村 落 共 同 體 類					
	동 네	가 름 村	里	洞	同姓	計
南 元	16 (1.3)	8 (0.6)	17 (1.4)	41 (3.3)	·	82 (6.6)
大 靜	12 (1.0)	1 (0.1)	18 (1.4)	52 (4.2)	2 (0.2)	85 (6.8)
城 山	29 (2.3)	9 (0.7)	14 (1.1)	33 (2.6)	1 (0.1)	86 (6.9)
安 德	18 (1.4)	1 (0.1)	12 (1.0)	35 (2.8)	2 (0.2)	68 (5.4)
表 善	9 (0.7)	4 (0.3)	12 (1.0)	34 (2.7)	3 (0.2)	62 (5.0)
舊 左	12 (1.0)	3 (0.2)	15 (1.2)	68 (5.4)	·	98 (7.8)
牛 島	·	·	5 (0.4)	13 (1.0)	·	18 (1.4)
涯 月	36 (2.9)	25 (2.0)	26 (2.1)	74 (5.9)	3 (0.2)	164 (13.1)
朝 天	11 (0.9)	8 (0.6)	10 (0.8)	34 (2.7)	4 (0.3)	67 (5.4)
楸 子	4 (0.3)	2 (0.2)	8 (0.6)	·	·	14 (1.1)
翰 京	12 (1.0)	6 (0.5)	17 (1.4)	60 (4.8)	1 (0.1)	96 (7.7)
翰 林	12 (1.0)	20 (1.6)	18 (1.4)	49 (3.9)	·	99 (7.9)
西 歸 浦	57 (4.6)	6 (0.5)	12 (1.0)	71 (5.7)	1 (0.1)	147 (11.8)
濟 州	25 (2.0)	48 (3.8)	11 (0.9)	76 (6.1)	3 (0.2)	163 (13.1)
計	253 (20.3)	141 (11.3)	195 (15.6)	640 (51.2)	20 (1.6)	1249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15.0	8.3	11.5	37.9	1.2	73.9

註 : () 안은 백분율임

정에서 많은 지역이 洞으로 命名되어 洞 聚落名이 전체 취락명 중 3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동카름→東洞, 강애왓→江華洞, 빗-므르→梔旨洞, 앞거리→前港洞 등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다.

村落共同體類 聚落名에는 ‘洞’, ‘동네’, ‘里’, ‘가름’, ‘村’, ‘同姓’의 순서로 나타났다.

同姓聚落은 멀리 三國時代부터 계속하여 온 것도 있으나 現在의 同姓 聚落은 조선시대에 성립한 것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土地가 大官·호족의 私所有制였던 관계로 이들이 地方에 정착하여 廣大한 토지를 占有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한층 더 階級 制度가 중시되어 귀족, 양반, 유림과 같은 특수 계급이 지방에서 위세를 떨치고 그들의 一門 同族이 大部落을 구성하게 되었다.³⁰ 제주도에선 특히 同姓聚落이 많으며 283개가 밀집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격리된 섬으로써 많은 호족을 배출하는 한편, 古來로 양반 유림으로서 한 때를 주름잡은 名族이 정변 또는 당쟁으로 流配된 결과이다.

分布地域을 보면 그림 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涯月, 濟州, 西歸浦 地域에서 頻度가 높게 나타났으며, 牛島, 楸子 地域의 頻度가 낮게 나타났다.

³⁰ 洪慶姬(1990). 『村落 地理學』(서울: 法文社), pp. 3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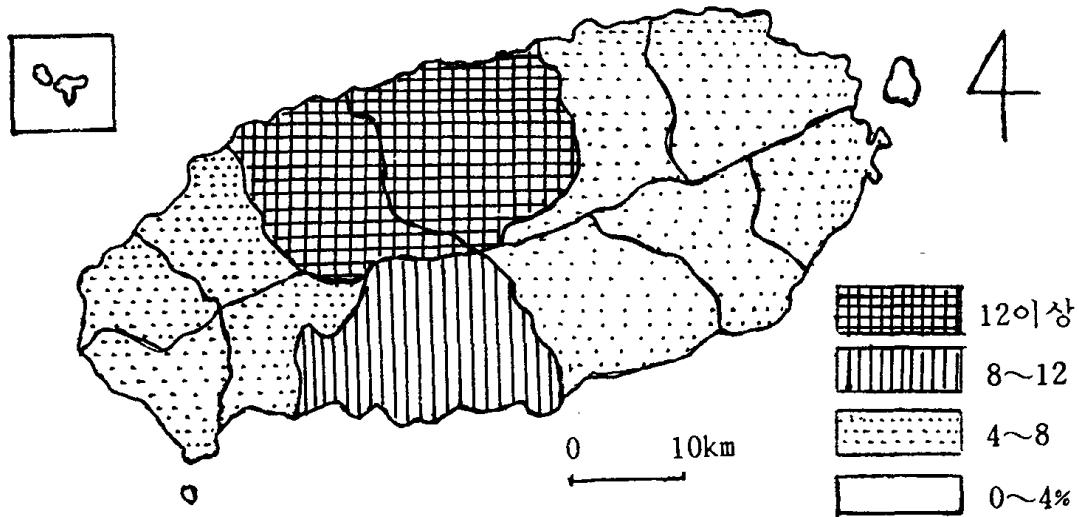


그림 11. 村落共同體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濟州와 涯月 地域은 村落共同體類 외에도 여러 종류의 聚落名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집중된 곳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先史時代부터 생활 무대가 형성되어 전통적인 住居空間으로 지속되었고, 풍부한 漁撈資源, 湧泉의 분포, 비옥한 土質 등 기본적인 生活條件이 구비되어 있으며 한반도와 의 해상 교통로가 最短通路이며, 岩焦가 적고 貝沙가 퇴적된 砂質海岸이 발달하여 船舶이 정박하기에 유리하고, 탁월한 북서풍을 이용한 항해술로 元과의 교류가 이루어져³¹⁾ 오래전부터 취락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西歸浦도 여러 聚落名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유일의 天然的 良港으로 6·25 동란, 4·3 폭동 사건 때 많은 피난민이 流入하였고 감귤 재배의 중심지이며 아름다운 風景이 많아 관광 도시로 발달한 큰 도시이기 때문이다.

³¹⁾ 吳洪哲(1989). 『聚落地理學』(서울: 敎學研究社), p. 144.

‘동네’에 관련된 聚落名은 ‘큰개왓동네’, ‘새동네’, ‘서알동네’, ‘모살물동네’, ‘물쫓동네’, ‘웃동네’, ‘논동네’, ‘족지동네’, ‘막은굴동네’ 등이 있다.

‘가름’은 제주도에만 나타나는 명칭이며 국어사전에 의하면 ‘구별하다’, ‘분별하다’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동네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가름’에는 ‘새가름’, ‘빌레카름’, ‘서카름’, ‘묵음가름’, ‘큰가름’, ‘당카름’, ‘웃가름’, ‘뒷가름’ 등이 있다.

‘村’은 ‘禮村’, ‘北村’, ‘新村里’ 등 3개에 불과하고 강화군은 131개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同姓聚落名으로는 ‘양치산경’, ‘송동네’, ‘趙哥洞’, ‘表善里(최씨와 현씨가 마을 개척)’, ‘房上洞’, ‘도갓거리(都家が 있었음)’, ‘善屹里(현씨가 처음 살았음)’, ‘강씨빌레’, ‘한삿골(한씨가 살기 시작함)’, ‘안갯물(안가가 처음 살았음)’, ‘신개동산(신가가 살았음)’ 등이 있다.

本 地域에는 동성취락외에도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이 많으나 점차 사라지고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제주시의 봉개동에는 ‘정씨촌’이란 동성취락이 있으나 현재는 ‘묵은 가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2. 先後類

地名은 地域의 特性과 歷史性を 內包하는 수가 많으며, 이것은 固定된 것이 아니라 時代에 따라 변천해 왔기 때문에 過去의 地名이 現在에도 그대로 傳承되어 使用하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完全히 없어져 어느 場所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 歷史와 관련된 地名을 分類하면 ‘新’, ‘舊’, ‘元’, ‘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村落 形成의 先後關係, 母村과 分村 등의 關係를 表現하는

표 13. 先後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頻度

區分 地域	先 後 類			
	新	舊	本・元	計
南 元	5 (4.7)	・	5 (4.7)	10 (9.3)
大 靜	3 (2.8)	・	・	3 (2.8)
城 山	5 (4.7)	1 (0.9)	1 (0.9)	7 (6.5)
安 德	4 (3.7)	1 (0.9)	・	5 (4.7)
表 善	3 (2.8)	1 (0.9)	・	4 (3.7)
舊 左	5 (4.7)	1 (0.9)	・	6 (5.6)
牛 島	・	・	・	・
涯 月	7 (6.5)	4 (3.7)	2 (1.9)	13 (12.1)
朝 天	5 (4.7)	4 (3.7)	1 (0.9)	10 (9.3)
楸 子	3 (2.8)	・	・	3 (2.8)
翰 京	13 (12.1)	2 (1.9)	2 (1.9)	17 (15.9)
翰 林	4 (3.7)	1 (0.9)	・	5 (4.7)
西 歸 浦	2 (1.9)	・	・	2 (1.9)
濟 州	17 (15.9)	5 (4.7)	・	22 (20.6)
計	76 (71.0)	20 (18.7)	11 (10.3)	107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4.5	1.2	0.7	6.3

註 : () 안은 백분율임

接頭語를 뜻한다.³²⁾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토를 넓혀 새로운 開拓地에는 新자 지명이 많이 나타난다.

本地域도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後類 聚落名중 '新'이 차지하는 比率이 71.0%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舊'로 20%, '本', '元'은 11%로 나타났다.

分布地域은 그림 12와 같이 제주도에서 頻도가 높은 地域은 濟州, 涯月, 翰京 등지이며 낮은 頻도를 보인 곳은 牛島, 大靜, 楸子, 表善, 西歸浦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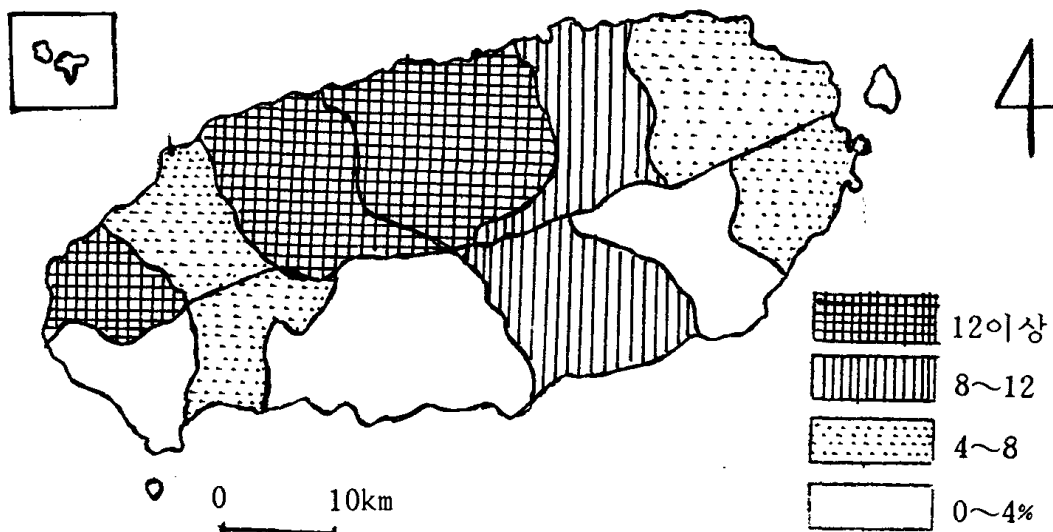


그림 12. 先後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新' 聚落名으로 '신설동', '新禮里', '新成洞', '新興里', '新坪里', '新陽里', '新山里', '새동네', '신비지동', '新田洞', '새가름', '新安洞', '新村里', '새웬당', '신물', '羅新洞', '新孝洞', '新沙水', '새넛가', '새광양',

³²⁾이성학(1975), p. 53.

‘새정드루’, ‘新川洞’, ‘새마을’, ‘새가람’ 등이 있다. 지형도 조사 결과 ‘新’ 취락명 지역은 母村과 分村간에 고도 차이가 많이나는 수직 이동이 많고 수평 이동의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

‘舊’ 聚落名에는 ‘묵은장터거리’, ‘묵은터동(3)’, ‘묵은가름(3)’, ‘구물살래’, ‘舊毛瑟’, ‘구물동’, ‘구엄리’, ‘묵은성창’, ‘古坪洞’, ‘옛개’, ‘古永洞’, ‘望古洞’, ‘괴술(옛술)’, ‘구사수’, ‘묵은성’ 등이 있으며 순 우리말인 ‘묵은’, ‘옛’ 등의 지명이 많이 나타났다.

‘本’과 ‘元’에는 ‘南元里’, ‘大元洞’, ‘上元洞’, ‘본동’ 등이 있는데 그중 ‘본동’이 7개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

3. 經濟活動類

가. 農業

우리나라는 有史以來 農業 立國을 大本으로 하였으며 特히 朝鮮時代에는 農業은 士大夫 다음으로 重視하여 人間生活의 모든 面은 農業과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本地域도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業에 관련된 다수의 聚落名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논(沓)’, ‘밭(田)’, ‘방죽’, ‘百石洞’, ‘吐’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도는 물이 괴지 못하는 화산성 지층이 넓은 곳이라 토지 이용에 있어 밭이 98%, 논이 2%로 밭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논을 구하려는 집착이 유달리 강하여 ‘논’자가 많이 붙여지고 있으며 강화군이 ‘논’ 聚落名이 1개인데 비해 제주도는 13개나 된다. 서귀포시 好近洞에는 ‘하논(大沓)’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다지 넓지 않은 논이지만, 제주도에서는 大沓이라고 여기는 지명이 된 것이다.

표 14. 經濟活動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頻度

區 分 地 域	經 濟 活 動 類							
	논	밭	牧牛 馬場	幕 수산업	店·所	광업	기타	計
南 元	·	6 (3.0)	2 (1.0)	·	1 (0.5)	·	1 (0.5)	10 (5.0)
大 靜	3 (1.5)	8 (4.0)	1 (0.5)	1 (0.5)	2 (1.0)	·	·	15 (7.5)
城 山	1 (0.5)	2 (1.0)	2 (1.0)	1 (0.5)	·	·	·	6 (3.0)
安 德	1 (0.5)	10 (5.0)	2 (1.0)	·	1 (0.5)	·	·	14 (7.0)
表 善	1 (0.5)	5 (2.5)	1 (0.5)	·	·	·	·	7 (3.2)
舊 左	·	8 (4.0)	·	3 (1.5)	1 (0.5)	·	2 (1.0)	14 (7.0)
牛 島	·	·	1 (0.5)	·	·	·	·	1 (0.5)
涯 月	1 (0.5)	25 (12.4)	4 (2.0)	·	·	·	3 (1.5)	33 (16.4)
朝 天	3 (1.5)	8 (4.0)	3 (1.5)	2 (1.0)	·	·	3 (1.5)	19 (9.5)
楸 子	·	3 (1.5)	·	·	·	·	·	3 (1.5)
翰 京	2 (1.0)	10 (5.0)	1 (0.5)	·	·	·	·	13 (6.5)
翰 林	·	19 (9.5)	2 (1.0)	·	·	·	·	21 (10.4)
西 歸 浦	1 (0.5)	8 (4.0)	1 (0.5)	3 (1.5)	·	·	2 (1.0)	15 (7.5)
濟 州	·	26 (12.9)	2 (1.0)	·	1 (0.5)	·	1 (0.5)	30 (14.9)
計	13 (6.5)	138 (68.7)	22 (10.9)	10 (5.0)	6 (3.0)	0 (0)	12 (6.0)	201 (100)
全體聚落名 에 대한 比 率 (%)	0.8	8.2	1.3	0.6	0.4	0	0.7	11.9

註 : () 안은 백분율임

밭에 관한 聚落名도 低位 侵蝕 平坦面이 널리 발달한 江華郡은 6개에 불과한 데 비해 경지가 적은 제주도는 138개로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논’ 聚落名은 ‘沓尾洞’, ‘논각동’, ‘내논동’, ‘논동네’, ‘錢沓洞’, ‘논동산’, ‘沓伊水’, ‘沓洞’, ‘논홀’, ‘田沓洞’, ‘서룬논’, ‘大沓’ 등이 있다.

‘밭’ 聚落名은 涯月, 濟州가 많으며 ‘大田洞’, ‘아흙밭’, ‘馬田洞’, ‘구석밭’, ‘堂田洞’, ‘長田洞’, ‘高田洞’, ‘麻田洞’, ‘官田洞’, ‘水田洞’, ‘射場田洞’, ‘한밭’, ‘솔때왓’, ‘물고는밭’, ‘지미왓’, ‘廣田(넙밭동네)’, ‘영머리왓’, ‘新田洞(새왓동)’, ‘脫田洞(밭 벗어난 동네; 집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 ‘습田洞(모듬밭; 사람들이 많이 모여 늪)’, ‘절터왓 동네’, ‘진밭동네(길게 뻗어 있음)’, ‘에운밭(돌담으로 에웠음)’, ‘개독밭(부근 동네 개들이 잘 모여 놀았음)’, ‘벨밭(양지바른 마을)’, ‘公草왓(약초밭)’, ‘케왓(큰 밭)’, ‘жат밭(돌담 밭)’, ‘七田洞(일곱 도로; 일곱 밭)’이 있으며 ‘왓’은 ‘밭’의 제주도 방언이다.

그외 농업에 관련된 지명으로 벼의 성육기에 물을 가두어 둘 堤防을 뜻하는 ‘吐坪洞’, 저수를 위하여 쌓은 둑으로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토목시설인 防築이 있어서 붙여진 ‘防築洞’이 있고 그외 ‘방아동네’, ‘百石洞(백성을 할 부자가 날 것이라 함)’ 등이 있다.

나. 畜産業

제주도에서 축산업의 발전은 高麗때 元이 침입하여 水山坪에 몽고에서 도입한 소, 말, 양의 방목을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그후 조선시대에는 군마의 징발을 목적으로 각지에 牧馬場을 만들어 평시에는 驛馬用, 役用 등에 공급되었고, 전시에는 군마로 쓰였다. 선조이래 本島의 牛·馬牧場의 대부분이 官牧場으로 되었

으나 국력의 쇠퇴와 함께 正祖 이후에는 자연 폐지되고 모두 民有로 되었다. 급속한 발전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³³⁾

방목의 지역은 해발 200~600m의 中山間 지대로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도 雨水의 삼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건조 상태로 광대한 草生地를 이룬다. 겨울 기온이 -5℃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적어 放牧期間이 길다.

실제로 지형도 조사 결과 ‘마통동(620m)’, ‘양지목장(560m)’, ‘대원목장(440m)’, ‘화일목장(370m)’, ‘巨馬屹(370m)’, ‘가시리목장(340m)’, ‘제남목장(300m)’, ‘금성목장(290m)’, ‘馬田洞(280m)’, ‘이시돌목장(220m)’ 등이 200~600m의 지역에 집중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산업과 관련된 聚落名으로는 ‘馬田洞’, ‘直舍點馬所(조선때 말을 이곳에서 점검하여 가장 좋은 말을 나라에 진상함)’, ‘守馬基洞’, ‘水馬浦’, ‘소치동산(소를 방목함)’, ‘馬桶洞’, ‘牛島(목우장이 있었음)’, ‘목안(옛 목장 안쪽)’, ‘몰통난밭(몰통: 말을 가두어 두는 곳)’, ‘國場(나라의 목장)’, ‘한장동(큰 목장)’, ‘마홀동’, ‘이시돌목장’, ‘馬足田’, ‘거마동’, ‘몰몰앗(말에게 먹이던 물이 있었음)’, ‘새장밭(새로 만든 마장)’ 등이 있다.

다. 수산업

우리나라는 佛教를 國教로 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儒教를 숭상하여 殺生을 싫어하였으며 해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海尺, 漁丁 등으로 賤視하였기 때문에 漁村이라 하는 것도 地名에 똑똑히 나타나지 않거니와 농업관계 지명에 비하여 그 수가 극히 적어서, 농업 관련 취락명이 155개인데 비해 수산업 취락명은 10개에 불과하다.

³³⁾강석오(1984), p. 242.

수산업 취락명으로는 ‘소금밭’, ‘住魚洞(2)’, ‘소금막’ 등이 있으며 ‘새막’, ‘왜막(일제때 일인들이 막집을 짓고 어업을 함)’ 등 漁幕地名도 나타난다. 높은 頻度を 보이는 곳은 舊左와 西歸浦 地域으로 나타났다.

라. 광·공업

제주도의 지하자원은 생산되는 것이 없어 광업에 관련된 聚落名은 발견되는 것이 없었으며 제조업을 나타내는 聚落名도 전체 취락명에 대한 비율이 0.4%에 불과하다.

일상용품을 각자가 만들어 쓰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차츰 分業 형태로 되어 특정물을 만드는 직업이 발달하여 製作所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製作所 또는 초보적인 공장 형태를 지닌 곳을 店, 所 등으로 표현하고 이들 글자가 붙은 지명이 많이 나타난다.

製造業 관련 聚落名으로는 ‘불목끝(불뭇간)’, ‘웅기전’, ‘토기동(질그릇을 구었다 함)’, ‘불목밭(대장간)’, ‘甕浦里’, ‘가매터’, ‘大釜浦’, ‘독짓골’ 등이 있으며 주로 대장간과 그릇 제조에 관계된 것이 분포한다.

經濟活動類 聚落名은 농업(9.0%)→축산업(1.3%)→수산업(0.6%)→광공업(0.4%)의 순서로 분포하며 높은 頻度を 나타내는 곳은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涯月, 濟州, 翰林, 朝天 등지이며 牛島, 城山, 楸子, 表善 地域이 頻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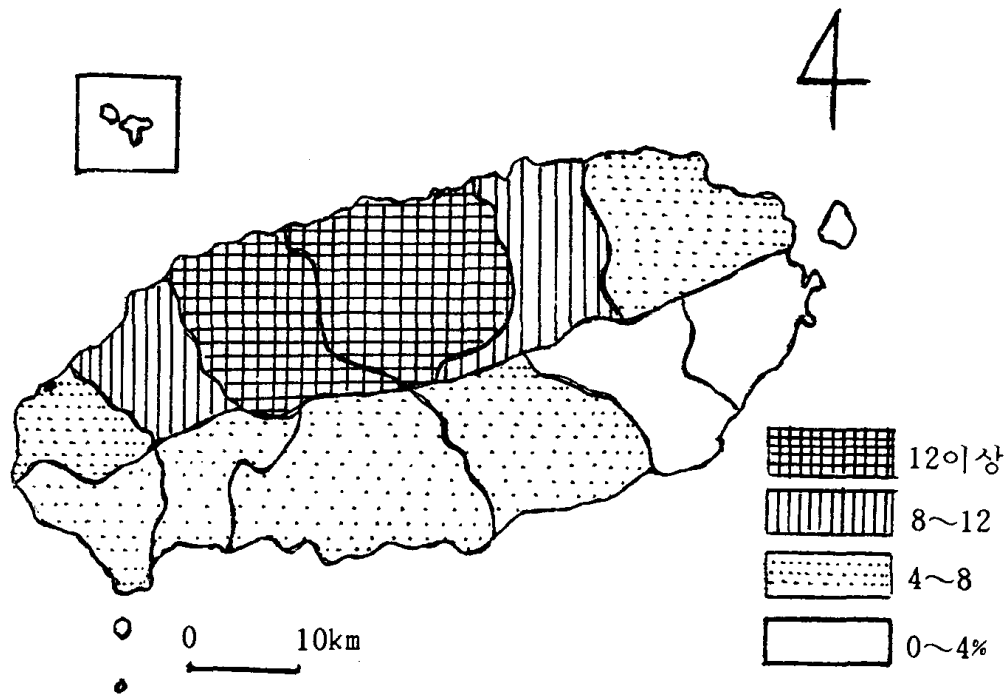


그림 13. 經濟活動類 聚落名의 地域的 分布

4. 交易類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고려시대 초기에 전국에 걸친 交通網이 정비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中央執權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로의 정비와 함께 많은 시설이 갖추어졌고, 이 시대에는 交通에서 가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날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本 地域은 표 1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리→나루터→驛院의 순으로 交易類 聚落名이 분포하였다. 또한 交易을 위한 倉, 場市 등의 村落도 다수 나타났다.

가. 거리

거리는 ‘걷다’, ‘걸어간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여행을 하는데는 도로의 조건에 좌우되므로 보급에 의지하거나 차마에 의지하던 시대에는 도로에 관계되는 지명들이 많이 붙여져 있다.

‘거리’ 聚落名으로는 ‘묵은 장터 거리’, ‘前巷洞(앞거리)’, ‘朱路洞’, ‘좁은 길 동네’, ‘댁거리’, ‘니커리(네거리가에 있는 마을)’, ‘들돌거리’, ‘시커리(세거리)’, ‘장백거리’, ‘도릿거리’, ‘물막은 거리’, ‘도갓거리’, ‘거리못’, ‘당거리’, ‘구린길(외판길)’, ‘비석거리’, ‘상돛거리’, ‘사릿거리’, ‘아낭거리’, ‘너상거리’, ‘城路洞’, ‘長路洞’, ‘이무덤거리’, ‘못거리’, ‘가문길’ 등이 있으며 가장 頻度가 높은 지역은 涯月이다.

나. 驛·院

驛은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왕래와 숙박, 官物의 수송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 대체로 30리 마다 하나씩 두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 538개의 역을 40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찰방을 두어 소속 역을 통할하게 하였다.³⁴⁾ 院은 고려, 조선 시대에 지방으로 출장하던 관속들의 숙박소로서, 공용으로 여행하던 사람들에게 宿食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각 요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 두었다.³⁵⁾

驛에 관한 聚落名은 ‘역원동’이 있을 뿐이고 察訪과 院에 관한 지명이 약간 남아 있으며 ‘찰방밭’, ‘院洞(2)’, ‘院東山’, ‘東濟院’, ‘원정이’ 등이 있으며 濟州 地域이 높은 頻度를 나타내고 있다.

³⁴⁾『새국사사전』 “역” 항목. 서울: 교학사, 1993, p. 807.

³⁵⁾앞 글, “원” 항목. p. 875.

표 15. 交易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區 分 地 域	交 易 類						
	거 리	驛·院	나루터	橋	場 市	倉	계
南 元	·	1 (1.0)	·	·	·	·	1 (1.0)
大 靜	·	·	·	2 (2.1)	·	1 (1.0)	3 (3.1)
城 山	1 (1.0)	·	1 (1.0)	·	2 (2.1)	·	4 (4.2)
安 德	·	·	·	·	1 (1.0)	3 (3.1)	4 (4.2)
表 善	·	·	·	·	·	·	·
舊 左	2 (2.1)	·	1 (1.0)	·	2 (2.1)	·	5 (5.2)
牛 島	·	·	4 (4.2)	·	·	·	4 (4.2)
涯 月	15 (15.6)	1 (1.0)	·	1 (1.0)	1 (1.0)	2 (2.1)	20 (20.8)
朝 天	11 (11.5)	1 (1.0)	3 (3.1)	1 (1.0)	·	·	16 (16.7)
楸 子	·	·	·	·	·	·	·
翰 京	2 (2.1)	·	·	·	·	·	2 (2.1)
翰 林	10 (10.4)	·	·	3 (3.1)	1 (1.0)	1 (1.0)	15 (15.6)
西 歸 浦	2 (2.1)	1 (1.0)	·	·	·	·	3 (3.1)
濟 州	10 (10.4)	3 (3.1)	3 (3.1)	1 (1.0)	1 (1.0)	1 (1.0)	19 (19.8)
計	53 (55.2)	7 (7.3)	12 (12.5)	8 (8.3)	8 (8.3)	8 (8.3)	96 (100)
全體聚落名에 대한 比率(%)	3.1	0.4	0.7	0.5	0.5	0.5	5.7

註 : () 안은 백분율임

다. 나루터

道路가 河川, 水路, 海峽과 교차하는 지점에는 나루터가 생기고 취락이 발달한다. 교통량이 큰 도진은 교량이나 철도가 지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도진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악화되며, 취락 발달의 입지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도진 취락은 쇠퇴하고 만다.

本 地域의 나루터 취락명은 '성창동네(선 창)', '배드린개(船入洞)', '獨津串', '天津里', '묵은성창', '배낭골', '뱃구들(지형이 구들→방 처럼 되어 배대기가 매우 좋음)', '배두리', '뱃머릿 가름' 등이 있으며 牛島地域이 頻度가 높게 나타났다.

라. 橋(다리)

강을 건너는 곳에 다리가 가설되어 교통이 편해진 지역에 다리에 관련된 취락명이 다수 나타난다. 橋 취락명으로는 '伊橋洞', '도릿(다리)거리', '橋來理', '무교동', '한교동', '한다리(대교동)', '도근넷-뚜리' 등이 있으며 높은 頻度를 보이는 곳은 翰林 地域으로 나타났다.

마. 場市

정기 시장인 재래 시장은 상설 시장이 거의 없는 농어촌에 서는데, 교역 수단이 근대화됨에 따라서 정기 시장은 쇠퇴하기에 이르렀으나 農家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일부는 市場에서 판매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근래에도 場市는 교역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있다. 場市는 5일에 한 번씩 開市하는데, 대체로 2~3개 面에 1개의 場市의 비율로 분포한다.

本 地域의 場市 聚落名은 많은 분포를 보이지 않지만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場市 취락명은 '장마니동', '묵은 장터거리', '장기터', '市場洞', '장판동', '하귀장터', '장백거리', '東門市場', '翰林場터' 등이 있으며 城山, 舊左地域이 頻도가 높게 나타났다.

바. 倉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비롯한 곡물이 租稅라 하여 오늘날의 세금과 같은 명목으로 거두었다. 따라서 租穀을 거두어 들이고 이를 수송, 보관하기 위하여 倉이 필요하였다. 이들 倉은 전국 어디에나 고르게 분포하였다. 제주도에는 '倉'에 관련된 취락명이 8개 분포하며 '上倉里', '倉川里', '倉後洞', '창오동' 등이 있으며 安德이 頻도가 높게 나타났다.

交易類 聚落名の 公布 地域은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지와와 교류가 활발했던 북제주군의 涯月, 朝天, 翰林, 濟州가 높은 頻도를 나타냈으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제주군의 南元, 表善, 楸子, 翰京 地域은 頻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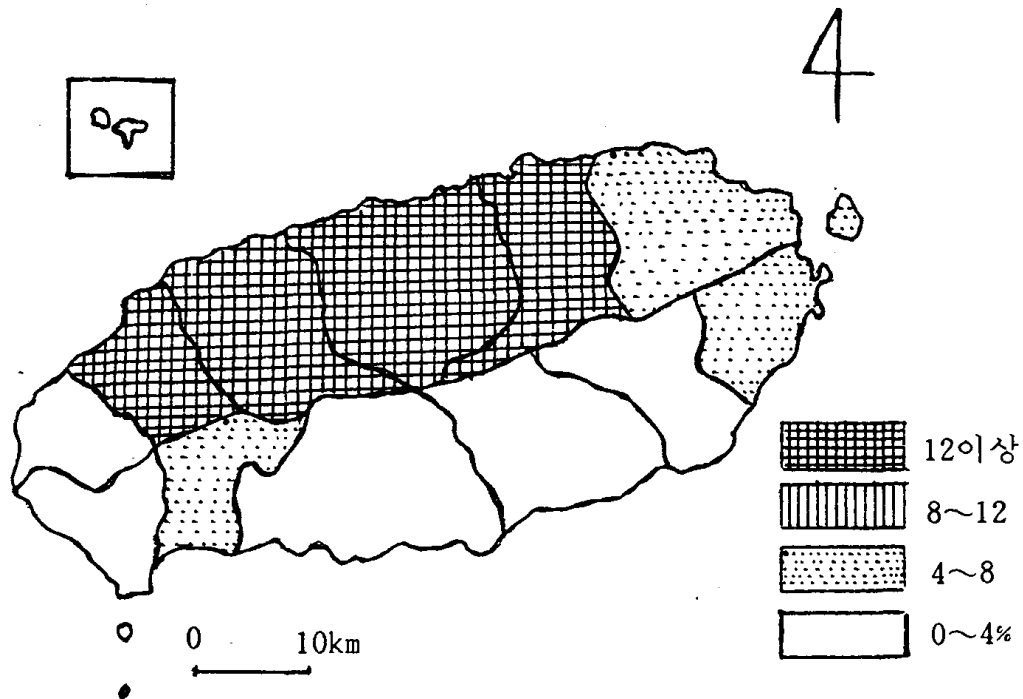


그림 14. 交易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5. 防禦類

우리나라는 文治에 흐르고, 평화안일에 치우쳐 자주 침략을 받았다. 대륙에서는 漢, 滿, 蒙의 침입을 자주 받았고 大韓海峽을 건너서는 倭의 入寇를 자주 받았으므로, 웬만한 취락은 이들 외적을 막는 것을 생각하여 邑城을 갖추었고, 부근의 험한 山에 山城을 마련하였다.³⁶

제주도는 先史時代부터 人類가 居住하였으며 孤島이므로 高麗末까지는 外敵의 侵入이 별로없이 平和롭게 生을 누렸다. 그러나 高麗末에 元이 침입하고 또 麗末에서 李朝初에 거쳐 倭寇의 掠奪이甚하여 社會가 不安하였다. 南濟州郡 城山 邑에는 古城里가 있는데 三別抄亂 때의 축성이며, 大靜邑은 조선시대에 濟州牧, 旌義縣과 더불어 濟州 三邑이라 불리운 큰 고을이었으며 조선시대 말에는 자주 倭寇를 비롯하여 근해를 지나던 西洋人들이 상륙하여 약탈을 일삼아 소, 돼지 등을 몰아갔으므로 城을 쌓고 이를 막았으므로, 지금도 保城里, 安城里, 仁城里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防禦類 聚落名의 비중이 높으며 城廓에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³⁶ 李泳澤(1986), pp. 433-458.

표 16. 防禦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區 分 地 域	防 禦 類							計
	鎭·營	城 廓	堡·돈대	射·弓	烽 燧	垣·牆	軍·兵·武·屯	
南 元	·	2 (1.8)	·	·	2 (1.8)	1 (0.9)	·	5 (4.5)
大 靜	1 (0.9)	3 (2.7)	1 (0.9)	1 (0.9)	·	1 (0.9)	1 (0.9)	8 (7.1)
城 山	2 (1.8)	5 (4.5)	·	1 (0.9)	1 (0.9)	·	·	9 (8.0)
安 德	1 (0.9)	1 (0.9)	·	2 (1.8)	1 (0.9)	·	·	5 (4.5)
表 善	·	2 (1.8)	·	1 (0.9)	1 (0.9)	1 (0.9)	·	5 (4.5)
舊 左	1 (0.9)	3 (2.7)	·	·	·	·	·	4 (3.6)
牛 島	·	·	·	·	·	·	·	·
涯 月	4 (3.6)	8 (7.1)		1 (0.9)		4 (3.6)	1 (0.9)	18 (16.1)
朝 天	·	·	·	1 (0.9)	·	1 (0.9)	·	2 (1.8)
楸 子	·	·	·	·	·	·	·	·
翰 京	2 (1.8)	6 (5.4)	·	·	·	2 (1.8)	·	10 (8.9)
翰 林	2 (1.8)	5 (4.5)	·	1 (0.9)	·	3 (2.7)	1 (0.9)	12 (10.7)
西 歸·浦	·	·	·	·	·	1 (0.9)	2 (1.8)	3 (2.7)
濟 州	4 (3.6)	14 (12.5)	·	2 (1.8)	1 (0.9)	5 (4.5)	5 (4.5)	31 (27.7)
計	17 (15.2)	49 (43.8)	1 (0.9)	10 (8.9)	6 (5.4)	19 (17.0)	10 (8.9)	112 (100)
全體聚落名에 대한 比率(%)	1.0	2.9	0.1	0.6	0.4	1.1	0.6	6.6

註 : () 안은 백분율임

분포 지역은 그림 15와 같이 삼별초군이 몽고와 항쟁하였던, 涯月, 濟州 地域의 頻度가 높고 牛島, 楸子, 朝天, 舊左, 西歸浦 등지의 頻度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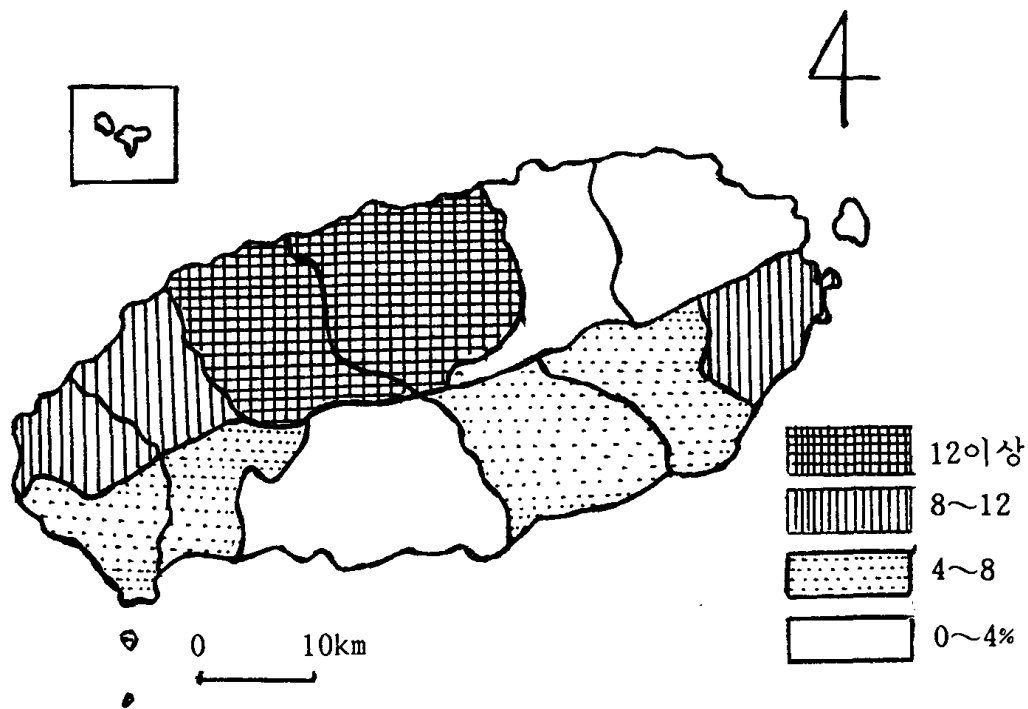


그림 15. 防禦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가. 鎭·營

鎭은 처음에 水陸을 방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남한의 鎭 지명은 水軍과 관계되는 것이 많다. 營은 鎭의 일종이며 주로 兵營과 水營으로 나뉘어진다.

鎭·營·방호소 취락명은 ‘水山鎭’, ‘모슬포 방호소’, ‘오조포 방호소’, ‘別防所’, ‘涯月浦鎭(애월방호소)’, ‘鎭동네’, ‘차귀진(차귀방호소)’, ‘鎭近洞’, ‘明月鎭’, ‘營後洞’, ‘御營洞’ 등이 있으며 涯月, 濟州가 높은 頻度를 나타냈다.

나. 城廓

城廓은 대부분 山城과 都城(邑城)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異民族의 침입이 잦았던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山城의 필요성이 더욱 컸으므로 전국 각지에 무수한 山城이 분포하고 있다. 도로나 諸邑의 둘레를 둘러 막은 都城 또는 邑城은 주로 高麗 이후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이다.

城廓 聚落名은 ‘태성동’, ‘장성동’, ‘保城里’, ‘安城里’, ‘仁城里’, ‘城山里’, ‘古城里’, ‘城内洞’, ‘성문터’, ‘城邑里’, ‘東城洞’, ‘錦城里’, ‘鳳城里’, ‘新城洞’, ‘城路洞’, ‘진근성’, ‘명월성안’, ‘竹城’, ‘陳城洞’, ‘새성안’ 등이 있으며 濟州가 가장 높은 頻度를 나타냈다.

다. 堡·墩臺

堡는 성곽, 성벽과 같은 방어 시설을 갖춘 작은 城을 뜻하며 외적을 막는 요지에 설치되었다. 제주도 大靜邑 保城里의 保는 堡에서 略化된 한자이다. 墩臺는 적을 막기 위하여 축조한 砲臺나 城壁을 말하는데 江華島에는 해안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墩臺가 설치되어 있다. 제주도는 ‘堡’ 聚落名이 1개이며 ‘墩臺’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강화군의 경우는 ‘廣城堡’ 외에 ‘墩臺’ 지명이 12개로 제주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라. 射·弓

弓은 활을 나타내며 주로 射場이나 활을 만드는 弓匠이 있는 곳의 지명으로 쓰인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弓矢가 주요한 武器이었으므로 이들이 지명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射자가 붙은 지명은 주로 弓射場, 射亭 등이 있는 곳에 붙여진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각지에 고르게 분포하여 射·弓 聚落名이 10개 정도 있으며 射·弓 聚落名은 ‘射場洞(3)’, ‘파시왓(사장)’, ‘사장밭동(2)’, ‘射田洞’, ‘활미(궁미)’, ‘사장가름’, ‘北射場’ 등이 있으며 安德, 濟州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 烽燧

烽은 봉화, 즉 햇불이며 燧는 나무로 연기를 낸다는 뜻인데 烽燧는 급보를 전하는 연락 방법으로 쓰여 왔다. 法으로 봉수제를 제정하여 실시한 것은 고려시대(1149)부터이며 조선시대에 더 정비되어 평시에는 햇불을 1개, 敵이 근접, 上陸, 接戰 등에 따라 각각 2개, 3개, 4개 등으로 햇불을 올려 서울에까지 연락하였다.

烽燧 聚落名으로는 ‘연뒤(봉화올린 곳)’, ‘烟臺’, ‘불컨터’, ‘남산봉(봉수대)’ 등이 있으며 南元이 頻도가 높게 나타났다.

바. 垣·牆

垣은 낮은 담, 얇은 담을, 牆은 큰 담을 말한다. 垣·牆의 聚落名이 江華郡에는 3개에 불과한데 비하여 제주도는 19개로 현저히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제주도 곳곳에 높은 돌담을 돌려 말이 넘지 못하게 축조한 築垣이 민가나 밭 주위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돌담은 가축이나 맹수가 밭곡식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쌓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옛날에 횡포한 무리들이 土地를 뺏고자 하룻밤 사이에 밭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땅을 잠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풍부한 玄武岩을 쌓아 올려서 築垣을 만들게 하여 그 폐단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제주도의 聚落은 대소를 가릴 것 없이 돌담으로 둘러 있을

뿐 아니라 田畓의 주위도 마찬가지이다.

垣・牆 聚落名을 보면 ‘橫牆洞’, ‘한담동’, ‘жат(돌담)동네’, ‘жат발’, ‘жат동네’ 등이 많아서 울타리를 치고 잡았다고 하는 ‘돌바령(울타리)’, ‘주근디머들(돌담)’, ‘보머리왓 : 보말(잔돌로 쌓은 담)’, ‘답닥걸 : 답(돌담)’, ‘동대머들’, ‘신머들’, ‘大垣洞’, ‘큰담발’ 등이 있으며 돌담에 관한 용어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는 ‘망을 보다’라는 뜻의 취락명이 있는데 ‘水望里’, ‘망동산’, ‘望古洞’, ‘망바께’, ‘망밭동네’ 등 강화군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지명이 보이며 垣・牆 취락명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濟州市 地域이다.

사. 軍・兵・武・屯

內戰이나 外侵을 많이 겪었던 우리나라에는 軍 주둔지나 군을 지칭하는 軍・兵자 지명이 많이 분포한다. 武는 軍官이 소속한 班列을 뜻하는 것과 勇猛스럽다는 뜻으로 쓰이며 또한 평시에는 논밭을 가꾸고 일단 외적이 침입할 경우에는 군대를 조직하여 이를 막아내는 屯田兵이 주둔하는 곳을 屯이라 하였고 이들이 가꾼 전답을 屯田이라 하였다.

軍・兵・武・屯 聚落名은 ‘軍港洞(고려때 관군이 주둔했었다 함)’, ‘兵門밭’, ‘병단’, ‘廉屯’, ‘演武亭(무예연습장)’, ‘兵門골’, ‘필병대(피리병대)’, ‘새병골’ 등이 있으며 濟州市 地域이 頻度가 높게 나타났다.

표 17. 民俗・宗教類 聚落名の 地域別 出現 頻度

區 分 地 域	民 俗 ・ 宗 教 類					
	향교·유교덕목	堂・祭	寺・塔	支石・立石	亭	計
南 元	5 (5.6)	1 (1.1)	・	・	・	6 (6.7)
大 靜	2 (2.2)	1 (1.1)	2 (2.2)	・	・	5 (5.6)
城 山	・	5 (5.6)	1 (1.1)	・	・	6 (6.7)
安 德	1 (1.1)	3 (3.3)	・	1 (1.1)	・	5 (5.6)
表 善	・	3 (3.3)	・	・	・	3 (3.3)
舊 左	2 (2.2)	3 (3.3)	1 (1.1)	・	・	6 (6.7)
牛 島	・		・	・	;	
涯 月	5 (5.6)	2 (2.2)	3 (3.3)	・	・	10 (11.1)
朝 天	・	6 (6.7)	1 (1.1)	・	・	7 (7.8)
楸 子	1 (1.1)	・	1 (1.1)	・	・	2 (2.2)
翰 京	1 (1.1)	3 (3.3)	・	・	・	4 (4.4)
翰 林	・	・	2 (2.2)	・	・	2 (2.2)
西 歸 浦	5 (5.6)	1 (1.1)		1 (1.1)	・	7 (7.8)
濟 州	8 (8.9)	9 (10.0)	7 (7.8)	2 (2.2)	1 (1.1)	27 (30.0)
計	30 (33.3)	37 (41.1)	18 (20.0)	4 (4.4)	1 (1.1)	90 (100)
全體聚落名에 대한 比率(%)	1.8	2.2	1.1	0.2	0.1	5.3

註 : () 안은 백분율임

6. 民俗·宗教類

우리의 傳統 民俗 宗教는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하여 왔다.

제주도는 태풍, 폭우, 화산분출, 해일, 심한 폭풍 등 무서운 자연의 위력 앞에 노출되어 있는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 신앙이 더 발달되어 있어 표 17과 같이 民俗 宗教類 聚落名 중 ‘堂·祭’가 차지하는 비율이 41.1%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民俗·宗教類 聚落名の 分布 地域은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頻度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 濟州, 涯月 地域이며 牛島, 楸子, 翰林 地域은 頻度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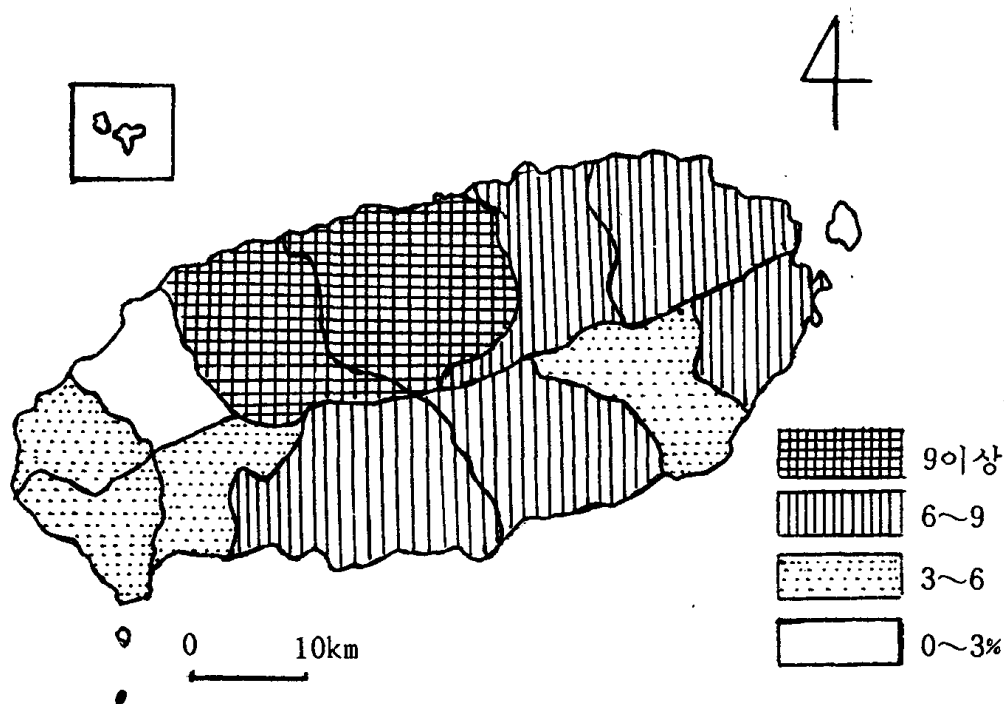


그림 16. 民俗·宗教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가. 향교 · 유교 덕목

근세 5백년 동안 儒敎가 국교와 같이 되어 유교에 관계되는 지명이 많다. 忠孝를 비롯하여 仁, 義, 禮, 智, 信 등과 같은 가르침에 따라 德目을 딴 지명이 붙여졌거나 鄕校, 書堂 같은 지명도 많이 볼 수 있다.

향교 · 유교 덕목 聚落名으로는 ‘禮村’, ‘명륜동’, ‘仁鄕洞’, ‘仁城里’, ‘德修里’, ‘德泉里’, ‘歸仁洞’, ‘열녀왓’, ‘禮園洞’, ‘학교동’, ‘禮草里’, ‘孝敦’, ‘新孝洞’, ‘향긋골’, ‘仁多洞’, ‘重仁洞’, ‘新校洞(전남 광양에서 향교를 옮겨온 뒤 새로 생김)’, ‘下校洞’, ‘上校洞’ 등이 있으며 제주 향교가 있었던 제주시가 향교에 관계된 취락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나. 堂 · 祭

우리나라의 민간 종교에 속하는 土俗信仰의 대상으로는 城隍堂, 山神堂, 堂山 등이 있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祭로는 洞祭, 山神祭, 堂山祭 등이 있다. 마을에는 입구에 돌무더기(積石)와 堂 나무로 된 城隍堂이 있는데 이곳이 제1 聖所가 되고, 그 안쪽으로 장승(長舛) 한쌍이 서 있는 수가 많다. 이곳이 제2 聖所가 된다. 城隍堂, 長舛, 祭山 그리고 堂집이 함께 하나의 문화로 복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部落祭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堂, 祭’ 聚落名으로는 ‘堂東山’, ‘堂田洞(당밭)’, ‘진안할망당’, ‘쇄당카름’, ‘갯터(제를 지냈음)’, ‘광정당터’, ‘南堂洞’, ‘新堂’, ‘당머리’, ‘堂浦’, ‘쇠낭당오름(서낭당)’, ‘松堂里’, ‘당진목’, ‘남당알(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로 갈 때마다 제를 지내고 무사함을 빌었던 당집)’, ‘堂洞’, ‘당동네’, ‘영등막’, ‘당카름’, ‘미륵당’, ‘사랏걸(제사를 지내는 곳)’, ‘당팔물’, ‘당거리’, ‘당가동’,

‘사직이(사직단)’, ‘山川壇(산천제를 지냄)’, ‘운주당’, ‘각시당’ 등이 있다. 높은 頻度를 보인 곳은 濟州, 朝天 地域이다.

다. 寺·塔

신라,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國敎와 같은 구실을 하였으므로, 정신 문화면에 끼친 영향이 컸을 뿐 아니라 각지에 절이 많이 세워져 우리나라의 거의 어느 곳에서나 ‘절골(寺洞)’, ‘탑골(塔洞)’ 등의 지명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분포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抑佛 정책을 썼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는 6·25사변 등의 兵亂을 맞아 파괴 소실된 절이 많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화를 면한 절이 많고 또 불교 관계의 문화재는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속 종교류 취락명에서 ‘堂, 祭’가 1위, ‘향교, 유교 덕목’이 2위이며, 3위가 ‘寺, 塔’ 관계 취락명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江華郡은 佛恩, 兩寺 두 개의 面 이름부터 불교와 관련되어 있으며, 兩寺面은 北寺, 西寺의 이름을 따서 命名되었고 ‘寺, 塔’을 비롯한 불교관계 聚落名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寺, 塔’ 취락명으로는 ‘동부탑’, ‘서부탑’, ‘탑나니들’, ‘절터왓동네’, ‘寺洞(2)’, ‘절왓(2)’, ‘절골’, ‘절물’, ‘답(탑)다니’, ‘짐서머르(金寺란 절이 있었음)’, ‘독짓골(옛절이 있었음)’ 등이 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곳은 濟州市 地域으로 나타났다. 선정비들이 줄지어 서 있어 命名된 ‘비석거리’란 聚落名도 4개가 발견되었다.

라. 支石, 立石

권돌(支石: Dolmen)은 新石器時代로부터 金石併用時代에 걸쳐서 만들어진 巨石墓石을 말한다. 南方式 支石은 石棺 또는 甕棺 등을 매장하고 그 위에 큰 암석이나 板石으로 된 蓋石을 괴어 놓는 것이며, 北方式 支石은 長方形의 板石 4, 5개를 세워 지상에 石室을 만들고, 그위에 탁자 모양의 두껍고 널찍한 반석을 뚜껑으로 덮어서 卍字 모양을 이루고 있다.

立石은 신석기 시대의 巨石 기념물의 하나로 墳墓인 동시에 境界를 표시하였으며 신앙, 의식적인 뜻을 지녔다. 입석은 가공하지 않은 길고 큰 돌을 수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많다.

支石, 立石 聚落名은 安德에 ‘괘아진(고인돌) 동산’, 서귀포에 ‘立石洞’, 제주시에 ‘들은돌(거석동, 고인돌)’, ‘들돌거리’가 있다.

마. 亭

‘亭’은 村落共同體가 共有, 共用하는 共同集會의 場所이다. 特히 農業地帶에서는 共同勞動과 結付된 共同休息, 娛樂 및 共同祭典을 위한 場所이다.³⁷⁾ 그러므로 ‘亭’이 농업을 中心으로 하는 村落共同體의 중심점이 되어 지명에 反映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기후는 따뜻하나 土地가 石多하여 척박하기 때문에 풍부한 농업 生産을 올리기 어려워 兼業者가 많다. 바람이 강하고 婦女子들도 潛水 漁撈 活動을 해야 되는 이런 自然環境은 육지와 다르게 정자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9개가 분포하는 강화군과는 대조를 이룬다.

‘亭’ 聚落名은 제주시의 ‘拱辰亭터’ 1개가 있을 뿐이다.

³⁷⁾李敦柱(1966), p. 167.

표 18. 歷史・傳說類 聚落名의 地域別 出現 頻度

區 分 地 域	歷 史 ・ 傳 說 類				
	宮·陵	官	歷 史	傳 說	計
南 元	.	3 (4.9)	.	.	3 (4.9)
大 靜	.	.	.	.	.
城 山	.	.	3 (4.9)	1 (1.6)	4 (6.6)
安 德	.	1 (1.6)	1 (1.6)	1 (1.6)	3 (4.9)
表 善	.	2 (3.3)	.	.	2 (3.3)
舊 左	.	1 (1.6)	.	.	1 (1.6)
牛 島	.	.	2 (3.3)	.	2 (3.3)
涯 月	.	5 (8.2)	1 (1.6)	.	6 (9.8)
朝 天	.	3 (4.9)	1 (1.6)	1 (1.6)	5 (8.2)
楸 子	.	.	.	.	.
翰 京	.	1 (1.6)	2 (3.3)	2 (3.3)	5 (8.2)
翰 林	.	4 (6.6)	.	1 (1.6)	5 (8.2)
西 歸 浦	.	7 (11.5)	2 (3.3)	1 (1.6)	10 (16.4)
濟 州	.	6 (9.8)	5 (8.2)	4 (6.6)	15 (24.6)
計	0 (0.0)	33 (54.1)	17 (27.9)	11 (18.0)	61 (100)
全體聚落名에 대한 比率(%)	0.0	2.0	1.0	0.7	3.6

註 : () 안은 백분율임

7. 歷史, 傳說類

本 地域은 先史시대부터 人類가 居住한 故장이라 과거의 歷史的 事實에 關係된 聚落名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시조인 高, 梁, 夫 3인에 關係한 傳說 地名이 표 18과 같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歷史, 傳說類 聚落名の 分布 地域을 보면 그림 17과 같이 濟州, 西歸浦 地域에서 높은 頻度를 나타냈으며 楸子, 舊左, 表善, 牛島, 大靜 地域은 극히 낮은 頻度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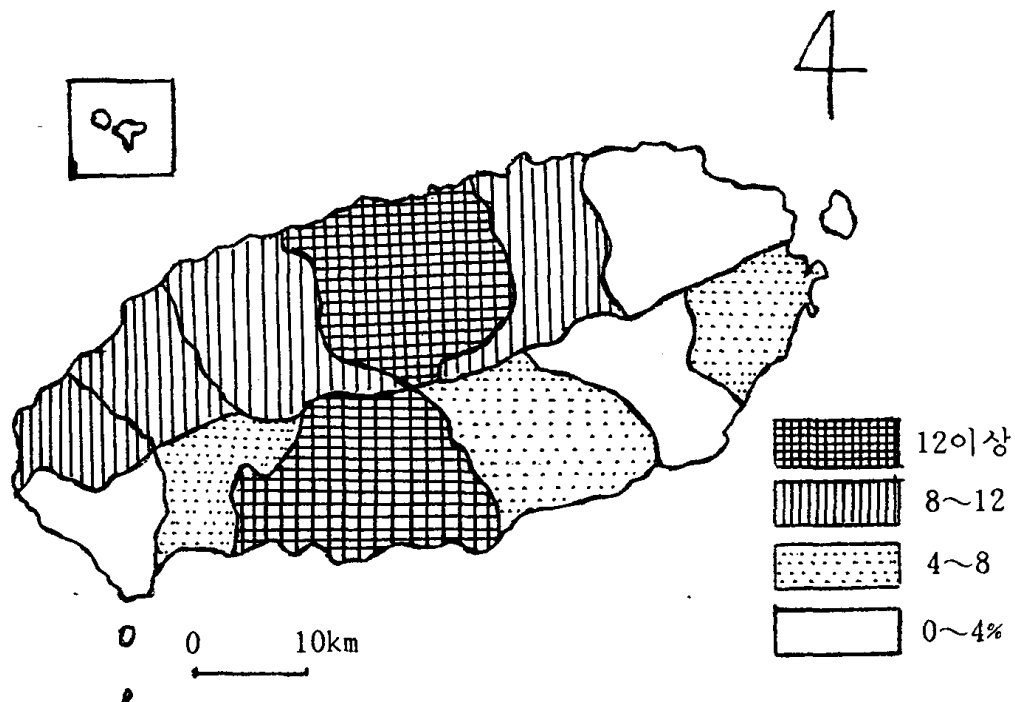


그림 17. 歷史·傳說類 聚落名の 地域的 分布

가. 宮, 陵

‘宮’, ‘陵’에 관계된 聚落名은 제주도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강화군에는 18개로 역사, 전설류 취락명 중 34.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나. 官

제주도는 ‘官’에 관련된 聚落名이 33개로 5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官’에 관계된 취락명으로는 ‘향사동(향소)’, ‘직사동(직사점마소)’, ‘官田洞’, ‘朝天里(조천관)’, ‘상돛(향소)거리’, ‘상청골(향청동)’, ‘貳衙洞’, ‘宣飯질똥(선반: 관아에서 관원에게 끼니때 제공하던 식사)’, ‘獄洞’ 등이 있으며 ‘官田洞’이란 聚落名이 6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때 縣이 있었던 곳으로 ‘예촌(狐兒縣)’, ‘兎山’, ‘金寧’, ‘涯月’, ‘貴日’, ‘威德’, ‘新村’, ‘歸德’, ‘明月’, ‘烘爐’, ‘猊來’, ‘加來’ 등이 있으며 縣의 이름을 붙여 聚落名이 정해진 곳이다. 頻度가 높은 지역은 濟州와 西歸浦 지역이다

다. 歷史

歷史的 事實에 근거하여 命名된 聚落名이 17개로 각 지역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서 歷史에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城山邑 古城里 : 고려때 원나라 말먹이꾼 합치가 제주만호 박도손을 죽였음. 성을 쌓았으나 바람이 세어 농사가 안되고 왜적이 자주 침입하여 고을을 포선면 성읍리로 옮김.

° 城山邑 水山里(물뎌) : 고려때 원나라에서 말, 소, 나귀, 양을 먹이었으며

조선 세종때 수산진을 두었다가 1597년 성산을 옮김.

城山邑 송동네 : 고려때 해적들의 침입을 막아 싸워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돌이 붉고 누르다 함.

安德面 광정당터 : 사당 오백 채와 사원 오백 채를 불사르고 무당들을 관노로 삼음.

牛島面 세배곶 : 한 노인이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이곳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세배를 하였음.

牛島面 전흘동(돈놀래) : 예전에 돈을 실은 배가 침몰하였다 함.

涯月邑 舊毛瑟(錦城里) : 홍수로 옮겼다가 뒤에 다시 옮겨와서 옛 마을터라는 뜻에서 구모슬개 또는 큰 석성이 있으므로 금성이라 함.

朝天邑 新村里 : 조선 숙종 37년(1711년) 8월에 큰 비바람으로 8가구가 물에 빠져 죽어 새로 건설된 마을임.

翰京面 셋배된 밭(우골동) : 전에 쇠도둑이 소를 많이 잡아 먹어 쇠배가 흩어져 있었다 함.

翰京面 한양동 : 6·25때 서울서 피난온 사람들이 새로 이룩하였음.

西歸浦市 尊坐洞 : 목사가 순행할 때 쉬던 곳임.

西歸浦市 加來村 : 옛 탐라국이 있었다 함.

濟州市 朝天石터 : 명나라에 가는 배들이 바람자기를 기다린 곳임.

濟州市 竹西樓터 : 목사 이현이 일본의 유구세자 일행을 모두 죽인 곳임.

濟州市 고두생이(가두생이) : 고려 충렬왕때 제주도에 웅거한 삼별초를 고려 몽고 연합군이 평정한 뒤 이곳에 달로화치부(達魯花赤府) 총관부를 두고 1284년에 군민안무사로 고침.

- 濟州市 정드루(淨坪) : 고려 원종 8년(1267년) 봄에 도둑 문행노가 난을 일으켜 진을 치므로 부사와 양사가 평정함.
- 濟州市 古齡田 : 예전에 바닷가가 되어 당나라의 배가 파선하였다 하며 지금도 가끔 밭을 갈다가 마노를 발견하게 되는데 당나라의 것이라 함.

頻도가 높은 지역은 濟州市 地域이다.

대부분 소, 말 등 축산업에 관계된 것과 홍수, 바람 등 기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라. 傳說

사람들 사이에 口傳으로 전해 내려온 說話는 항상 사람의 마음속 깊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소박하고 민중의 사고, 취미, 기호, 신앙 등을 나타내고 있다. 傳說 지명은 이와 같은 전설이나 설화에 근거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전설 취락명이 11개로 역사 전설류 취락명 중 18.0%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城山邑 溫平里 : 高, 梁, 夫 3신인이 세 신부를 맞아 혼례를 지냈으므로 예혼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온화하고 태평하다는 뜻의 溫平里로 됨.
- 朝天邑 威德里 : 예전에 신선이 많이 살았다 함.
- 翰京面 頭毛里 : 제주 시조인 高乙那, 夫乙那, 梁乙那의 三乙那가 낳았다 하여 三乙을 합하여 '毛'자가 된데서 우두머리라는 글자를 넣어 頭毛里가 되었다고 한다. 제주도의 서단에 있는 頭毛里가 머리임에 대하여 제주도의 동쪽 끝에 終達里(舊左邑)가 있어 끝을 나타내는 終과 꼬리를 나타내는 지

명으로 地尾峰이 되었다고 전한다. ‘尾’자에도 三乙이 들어 있다.

- ° 翰京面 도채빙덕(도채비영덕) : 도깨비가 잘 나타났다 함.
- ° 翰林邑 飛揚島洞 : 섬이 떠내려 와서 된 곳임.
- ° 西歸浦市 : 秦始皇의 사자 徐市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제주도 漢拏山에서 구하고 난 다음,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 하여 서귀포라 하였다고 전한다.
- ° 濟州市 一徒洞 : 옛날에 삼성혈에서 나온 高, 梁, 夫 3신인이 활을 쏘아 터를 잡았는데 이곳은 만인 양을나가 살았으므로 一徒라 하였다고 한다.
- ° 濟州市 二徒洞 : 이곳은 둘재인 고을나가 살았다 하여 二徒라 하였다고 함.
- ° 濟州市 三徒洞 : 이곳은 세재인 부을나가 터를 정하여 살았다 하여 三徒라 하였다고 전한다.
- ° 濟州市 七星洞 : 옛날에 고, 양, 부 3신인이 삼성혈에서 나와 활을 쏘아 저마다 지역을 나누어 정하고 이곳에 북두성 모양을 본떠서 축대를 쌓고 살았다고 전한다.
- ° 安德面 동동네(선배이돌) : 첫동네 사람들에게 놀려 지내다가 첫동네의 무반덕을 피로 거꾸러 뜨린 후로 반대가 되었다 함.

가장 頻度가 높게 나타난 곳은 濟州市 地域이다.

V. 結 論

地名은 地理的, 歷史的 特性이 綜合的으로 反映된 地域의 文化的 所産으로 지역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地理學의 흥미있는 研究 對象이다.

本 論文은 독특한 自然環境과 歷史的 배경을 가진 濟州道의 聚落名을 對象으로 命名 要素別 類型分類, 時代別 聚落名の 변화, 類型別 高度 分布 및 類型別 特性을 分析함으로써 地域性을 究明하고자 했다.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本 地域은 行政聚落名の 變遷이 심하였으며 순수 우리말 地名을 漢字化하는 과정에서 原地名 고유의 特性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2. 1918년의 空間關係 聚落名은 21.7%였으나 1992년에는 40.2%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것은 해방후 취락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편의상 上下類에 東西南北方位類를 혼합시켜 만들어낸 聚落名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 自然條件關係 聚落名 중 地形類는 山系(13.9%)보다 水系(18.3%) 聚落名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聚落立地에 水系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고도는 山系 98.5m, 水系 63.6m, 平野系 97.2m로 平野系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주민들의 환경 인지가 상대적인 것이어서 山間地域의 좁은 평지나 완경사지에서도 平野를 지칭하는 취락명이 많기 때문이다.

4. 기생화산에 관련된 ‘오름동’과 검은돌이 많아 命名된 ‘먹돌생이’ 등 火山地形의 특징을 반영하는 특이한 聚落名이 다수 分布하였다.

5. 대부분의 聚落名에서 地域別 出現頻度가 높게 나타난 濟州와 涯月은 한반도와 最短通路이며 漁撈資源, 湧泉, 비옥한 土質 등 기본적 生活條件이 구비되

어 일찌기 聚落이 발달되어 있었고, 西歸浦는 天然的 良港, 감귤 재배의 중심지, 관광 도시로 크게 발전한 것에 기인한다.

6. 人文條件關係 聚落名은 村落共同體類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말’ 地名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洞’이 37.9%로 높은 頻度를 나타냈다.

7. 經濟活動類 聚落名에서는 ‘밭’ 취락명이 8.2%로 가장 많으며 논이 경지의 2%에 불과하나 논을 구하려는 집착이 강해 ‘논’에 관한 聚落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馬場, 牧牛에 관련된 축산업 취락명이 많이 나타나 고려, 조선시대 때 주요 목마장으로써의 역할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8. 本 地域은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은 곳으로 郡城과 山城을 많이 축조하여 防禦類 聚落名 중 城廓에 관련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9. 民俗・宗教類 聚落名은 변화가 심한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 신앙이 더 발달되어 있으며 ‘堂・祭’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歷史에 관련된 취락명은 소, 말 등의 축산업과 홍수, 바람 등 기후에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며, 傳說 聚落名은 시조인 高, 梁, 夫 3인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 姜吉夫(1983). 풍수지리설의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 봄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55-64.
- (1985). 『郷土와 地名』. 서울: 正音社.
- 姜錫牛(1984). 『新韓國地理』. 서울: 大學敎材出版社
- 金連玉(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986). 韓國의 氣候地名에 關한 研究. 『論叢』, 第49輯(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 研究院), pp. 259-90.
- 東亞出版社 百科辭典部(1982). 『東亞世界大百科辭典』 제25권. 서울: 東亞出版社.
- 송보영, 최형식(1984). 거주형태와 취락형태간의 문화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환경 연구』 제5권(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p. 27-59.
- 申鉉雄(1981). 忠北報恩郡 村落名の 類型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미간행.
- 安矯植(1988). 慶南 陝川郡의 聚落名에 關한 研究. 全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미간행.
- 元學喜(1982). 서울市の 洞名攷. 『地理學叢』 第10號(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pp. 304-314.
-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서울: 민음사.
- 吳洪哲(1989). 『聚落地理學』. 서울: 敎學研究社.
- 李敦柱(1966). 全南地方의 地名에 使用된 漢字語의 分析的 研究. 『全南大論文輯』 제12권, pp. 135-71.

- 이성화(1975). 한국 지명에 대한 연구. 『경북대 논문집』 제20권, pp. 53-66.
- 李泳澤(1986). 『韓國의 地名』. 서울: 태평양
- 李弘植(1993). 『새국사 사전』. 서울: 교학사.
- 李桓坤(1986). 忠淸南道の 地名 研究.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미간행.
- 李賢英(1979). 한국 도시의 言語景觀.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9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pp. 61-77.
- 李喜演(1989). 『人口地理學』. 서울: 法文社.
- 田京淑(1979). 忠淸北道 地名의 類型 分布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建國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미간행.
- 鄭鎭元(1982). 韓國人의 環境知覺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地理學論叢』 제9호(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pp. 59-79.
-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제16권 제주편. 서울: 한글학회.
- 洪慶禧(1990). 『村落地理學』. 서울: 法文社.

基本 資料

- 國立地理院(1992), 1:50,000 地形圖.
- 朝鮮總督府(1918), 五萬分之一地形圖.

ABSTRACT

A Geographycal Study on Settlement Names in Cheju-do

Lee, Hye-won
Geography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geographical names of communities and villages in Cheju-do on the basis of their historical and chronological changes in order to reveal some natur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inhabitants perception on their environmental factors.

They toponyms in this study have been collected from the topographical maps published both in 1918 and in 1992, and another source is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n Korean Geographical Names*, Volume on Cheju-do, and finally, *Dictionary of Local Settlement Names of Cheju-do*.

All the settlement names here have been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notion of space, the relationship with natural environments and that of human civilization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1. The administrative settlement names have arbitrarily changed, often causing a lot of original names to lose their characteristics which had long been conveyed in them.

2. The proportion of settlement names related with the space notion has increased from 21.7% in 1912 up to 40.2% in 1992. This increase apparently shows that most new settlements since 1945, the year of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 start of our modern government, had mainly been named on the barometer of a compass direction for the sake of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s.

3. Among the number of settlement names relat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those of aquatic concept(18.3%) considerably surpass those of mountainous concept(13.9%), which means that the conditions of settlement location have been more influenced by the streams.

The average altitude of the mountainous settlement names shows 98.5m, that of aquatic names 63.6m, and 97.2m was that of plane settlement cases.

From the fact that plane toponyms occupy relatively high ratio, it is assumed that those inhabitants had had inclination of regarding any small, flat surfaces in gorges and on gentle slopes simply as plane.

4. Many unique settlement nam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s of volcano-topography are widely distributed such as 'Orumdong' related to parasitic volcano and 'Mugdolsangyee' connected with many black stones.

5. 'Cheju' and 'Awol', which show high regional frequency in most

settlement names, are developed early owing to fishing resources, wells, fertile soil. And 'Suguipo' is developed highly due to natural port and center of orange-farming and sightseeing.

6. Cultural settlement names mainly consist of various types of collective communities. And there are no toponyms with '∼MAL' which is nation-widely spread. However, the settlement names with '∼TONG' show a very high frequency of 37.9%.

7. In case of the economic settlement names, those related with the dry field account for 8.2%. Although the paddy fields in Cheju-do occupy only 2% among the whole arable lands, the settlement names related with the paddy fields take possession of higher percentage compared with other regions.

Settlement names concerning with the grazing lands for horses and cattle can be found very often, which, of course, indicates the important role of Cheju-do as grazing lands during the periods of Koryo and Chosun Dynasties.

8. Since the Island of Cheju had from time to time experienced foreign invasions, quite a many town wall, castle and fortress had been built. Such an influence remains in settlement names amazingly.

9. The severeness of the natural environments had caused the development of folk religion, totemism and local beliefs. Therefore, the settlement names naturally go with the character 'TANG' or 'CHE', meaning 'temple' or 'shrine' respectively.

10. Lastly, regarding to the settlement names related with the history, most of them are connected both with stock raising and with climatic interest such as floods and winds. About the settlement names of legends or folklores, the greater conveys the ancestors of Cheju Island (Mr.) Ko, Yang and Pu.